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자!

#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348호 [루게 제2330호] 주제 99 (2010)년 12월 14일 (화요일)

전당, 전군, 전민이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선군혁명  
령도를 높이 받들어나가자!

##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혁명활동소식을 여러 나라에서 보도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혁명활동소식을 여러 나라에서 보도하였다.

1일 중국의 신화통신은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조선의 김정일최고령도자께서 함흥시의 경공업공장과 합성수리동력대학을 현지지도하시었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인 김정일령도자께서는 함흥시의 백운산종합식품공장과 합성영예군인수리일용품공장을 현지지도하시고 흥남제약공장건설현형을 료해하시었다.

김정일령도자께서는 근로자들이 거둔 성과에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면서 그들이 생산을 높이고 인민생활향상에 적극 이바지하리라는 기대를 표명하시었다.

김정일령도자께서는 합성수리동력대학을 현지지도하시면서 대학의 교직원, 학생들이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애를 쌓아올린 위훈을 높이 평가하시었다.

같은 날 로씨야의 이파르—

대한 대자연계조상을 실현하는데 커다란 공헌을 한 이 대학의 교직원, 학생들의 위훈을 당과 인민은 영원히 잊지 않을것이라고 말씀하시었다.

그이께서는 교직원, 학생들이 나라의 부강발전을 위해 많은 일을 한데 대하여 만족을 표시하시었다.

그이께서는 나라의 과학기술을 최단기간에 발전된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는데서 대학의 교직원들이 나서서 과업을 제시하시었다.

2일 체코주제사상연구 및 구현소조와 백두산체조조선전선현회 인터넷포럼홈페이지 《조선—백두산》도 같은 소식을 실었다.

한편 중국신문 《참고소식》 2일부는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통싱기계련합기업소 분공장을 현지지도하신 소식을, 라오스통신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해방산기슭에 새로 건설된 살림과 개건된 영양무용대학을 현지지도하신 소식을 11월 30일에 보도하였다.

【조선중앙통신】

## 오늘의 대고조성과를 더 큰 기적과 승리로 이어가자

전당, 전군, 전민이 신심드높이 올해의 마지막대고조성을 힘차게 다그쳐나가고있는 속에 김철로동계급이 또 하나의 위대한 기적, 자립경제의 대승리를 안아왔다. 주체철생산체계를 완성하여 어버이수령님의 유훈을 결사관철한 김철로동계급의 투쟁정신, 창조기적은 지금 강성대국건설에 펼쳐나선 전제 인민을 무한히 격동시키고있다.

우리는 당의 령도밑에 이룩된 대고조의 성과를 공고히 하면서 더 큰 승리를 향하여 질풍같이 달려나가야 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우리는 지금까지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으로 싸워 승리하여온것처럼 앞으로도 그 정신이 높고 발휘하여 더욱 큰 승리를 이룩하여야 합니다. 더욱이...》

영양스러운 조선로동당장군 65분을 성대히 기념한 올해에 강성대국건설에서 전례없는 성과들이 이룩되었다. 주체철, 주체비료, 주체섬유가 쏟아지는 것과 같은 온 나라의 대경사가 펼쳐지고 최첨단기술개발에서 놀라운 성과가 이룩되었다. 인민생활향상에서 결정적인 전환을 가져오기 위한 올해의 투쟁에서 이룩되고있는 특기할 성과들은 강성대국건설의 최후승리의 날이 멀지 않았다는것을 확증해주고있다.

올해 혁명적대고조의 불길속에서 이룩된 기적적인 성과들은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가 안아온 빛나는 결실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조국의 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온 한해를 현지지도강행군으로 이어 오시었다. 위대한 장군님의 권리해방의 예지와 혁명적인 령도에 의하여 경제강국건설의 대풍모가 열리고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투쟁에서 자랑찬 승리가 이룩되고있다.

우리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애국애민의 헌신적인 로고로 마련하신 대고조의 모든 성과들을 더욱 공고히 하고 확대감고으로써 대고조건설에서 계속 끊임없는 비약을 이룩하여야 한다. 지금 당이 지어준 혁명적대고조의 불길속에서 우리의 강세를 추구하고 르고있다. 김철을 비롯한 수많은 공장,

기업소들에서 주체화, 현대화의 동을이 새차에 올려나오고 인민경제의 4대생활 부문과 인민생활향상의 주동전선인 경공업과 농업발전을 새로운 단계에 올려놓을 수 있는 튼튼한 토대가 마련되었다. 기수들답게 생산과 건설, 최첨단과학에 이룩된 성과를 공고히 하고 그에 기초하여 생산을 끊임없이 활성화해나가는 데 있다. 새로 일떠서고 현대화된 모든 생산토대와 잠재력이 자기 위력을 발휘하고 대고조의 기적이 새로운 기적으로 이어질 때 우리는 당이 내세운 일일표대로 강성대국의 명마루에 최후승리의 기발을 휘날릴수 있다.

지금이야말로 대고조의 더 큰 성과로 오늘의 창조와 변혁의 전성기를 선군조선의 대변영리로 이어가야 할 때이다. 대고조의 불길속에서 이룩된 주체화, 현대화의 성과를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투쟁에서 실지 온이 나도록 하여야 한다. 지금이야말로 대고조의 더 큰 성과로 오늘의 창조와 변혁의 전성기를 선군조선의 대변영리로 이어가야 할 때이다. 대고조의 불길속에서 이룩된 주체화, 현대화의 성과를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투쟁에서 실지 온이 나도록 하여야 한다.

올해에 경공업부문을 비롯한 인민경제의 여러 부문에서 주체화, 현대화가 힘있게 추진되어 놀라운 성과가 이룩되었다. 경공업부문을 비롯한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는 원료와 자재를 주체화, 국산화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해나가기 위하여 원가과 로동정량을 비롯한 기술경제적지표들을 끊임없이 갱신하고 생산에서 실리를 철저히 보장하며 내부예비를 적극 탐구동원하고 절약투쟁을 힘있게 벌려야 한다. 4대생활부문의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끌어올려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오늘의 총진군에서 기관차의 역할을 원만히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혁명적대고조의 손길은 지금 강성대국건설의 어느 부문, 어느 분야에 할것없이 미치지 않은 곳이란 없다. 우리 당의 령도에 의하여 마련된 귀중한 성과를 공고히 하고 더욱 확대해나가기에 강성대국건설의 승리가 있다.

현지지도단위들에서는 당의 령도업적을 빛내는 사업을 생명적으로 돌이켜 생산정진화의 동을을 새차에 올려나오라. 주체철생산체계를 주체비료와 주체비료생산체계를 더욱 완비하여 그것이 끊임없는 생산적양력으로 이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모든 단위의 생산에서 이룩된 성과를 더욱 공고히 하며 당창건 65주년을 성대히 기념한 올해를 우리 조국력사에 특기할 대변혁의 해로 빛나게 장식하자.

##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녀사 빼루단체 불레진 발행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탄생 93돐에 즈음하여 빼루 김일성주의연구소에서 11월 17일 불레진을 발행하였다.

불레진은 백두산녀장군의 사진을 모시고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녀사》라는 표제 밑에 여러 제목의 글들을 실었다.

불레진은 서문에 있는 김정숙동지께서는 혁명의 최후승리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지니시

고 착취계급을 반대하는 투쟁에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시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승리로 령도하시는 인민대중의 자주위업을 위한 투쟁에 바치신 그의 영광스러운 생애와 업적을 대를 이어 빛날것이라고 지적하시었다.

불레진은 《1917년 12월 24일》, 《김정숙, 고상하고 비범하신 인간》이라는 제목의 글들에

##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현지말씀을 높이 받들고 생산과 건설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자

단천시내 공장, 기업소들에서 열기모임 진행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현지말씀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열기모임이 단천시내 공장, 기업소들에서 12월 13일 진행되었다.

열기모임에는 라동회복해운상, 박범기 합경남도당 위원회 책임비서, 리찬화 단천시주말업총구 총구장, 관계부서 일꾼들, 건설자들, 종업원들이 참가하였다.

특혜운성 단천항 건설자들의 열기모임에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방대한 단천항건설을 성과적으로 진행하였다는 특혜운성의 당원들과 근로자들에게 보내신 감사사가 참가자들의 열렬적인 박수속에 전달되었다.

모임에서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동해의 날바다를 가르치시며 아득히 뻗어간 방파제들과 부두준설장, 각종 방파제용 부두들을 보시면서 항건설이 빠른 속도로 추진되고있는데

대하여 만족을 표시하시었다고 말하였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분에 넘치는 감사를 받아안는데 대하여 걱정을 금치 못하면서 그들은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으로 건설을 다그쳐 끝낼것으로 단천항에서 배고소리가 울려 퍼지게 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그들은 방파제건설에 역량을 집중하는것과 함께 항의 수심을 보장하기 위한 준형작업과 부두공사에 힘있게 내밀며 경제조직사업을 짜고들어 더 많은 부채들을 생산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우리 식의 독특한 공법을 받아들여 건설의 질과 속도를 높이고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을 활발히 벌리며 친련을 짚고 이고 만년을 보증한다는 마음을 안고 모두가 항건설에서 위훈의 창조자가 될데 대하여 그들은 강조하였다.

단천항건설사업 종업원 열기모임에서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모다시 공장을 찾으신

대하여 만족을 표시하시었다고 말하였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분에 넘치는 감사를 받아안는데 대하여 걱정을 금치 못하면서 그들은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으로 건설을 다그쳐 끝낼것으로 단천항에서 배고소리가 울려 퍼지게 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그들은 방파제건설에 역량을 집중하는것과 함께 항의 수심을 보장하기 위한 준형작업과 부두공사에 힘있게 내밀며 경제조직사업을 짜고들어 더 많은 부채들을 생산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우리 식의 독특한 공법을 받아들여 건설의 질과 속도를 높이고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을 활발히 벌리며 친련을 짚고 이고 만년을 보증한다는 마음을 안고 모두가 항건설에서 위훈의 창조자가 될데 대하여 그들은 강조하였다.

단천항건설사업 종업원 열기모임에서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모다시 공장을 찾으신

## 총공사량의 80% 계선 돌파

해산청년광산 개건공사 힘있게 추진

해산청년광산 개건공사가 본격적으로 추진되고있다.

총합된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5월부터 해산청년광산 개건공사가 시작되어 1년만 남짓한 사이에 선광장과 운반, 생산체계의 건축공사와 설비조립투자가 힘있게 진행됨으로써 총공사량의 80% 계선을 돌파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백두의 혁명정신은 그 어떤 난관도 뚫고 뚫고 나가는 불적정신이며 역천만 번 쓰러졌다가도 다시 일어나 싸우는 백절불굴의 투쟁정신이며 자기 손으로 나라를 짓고 사회주의박원을 세우겠다는 자주의 정신입니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일찍이 해산청년광산에 큰 의의를 부여하시어 광장도를 현지지도하시실 때마다 광산이 나아가야 할 길을 환히 밝혀주시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올해 5월 광장도단의 여러 부문 사업을 현지에서 지도하

## 불굴의 정신력의 창조자들답게

고산과수농장 현대화공사에 펼쳐나선 강원도의 당원들과 근로자들

강원도안의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고산과수농장 현대화공사에서 중요한 기술공급의 하나인 파일나무를 심기 위한 구멍이파기와 유기질 거름분기작업에서 새로운 위훈을 창조해나가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우리가 과수업발전에서 새로운 전환을 가져오면서 파일생산을 과학화, 현대화하여야 합니다.》

위대한 장군님의 말씀을 높이 받들고 고산과수농장 현대화공사장에 달려나온 618건설동맹대원들은 백두의 혁명정신으로 1단계 공사기간에 수백정보에 달하는 면적의 토지를 번듯하게 정리해놓았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토지정리된 수백정보의 면적에 다음에 불철부처 새 품종의 파일나무를 심을수 있도록 작업과제를 정확히 주는 것과 함께 결린 문제들을 제때에 알아보고 풀여주기 위한 사업을 잘해나가고있다.

도급기관들과 시, 군에서 달려나온 일꾼들과 근로자들이 맡겨진 작업과제를 짧은 기일에 수행할것을 약속하고 일터마다에서 혁신을 일으키고있다.

도급기관들에서는 보름이상 걸려야 할 방대한 작업과제를 불과 며칠동안에 끝내는 성과를 거두었다.

인산시와 문천시, 창도군과 이천군, 회양군과 회화군, 금강군을 비롯한 시, 군들에서 달려나온 일꾼들

## 불굴의 정신력의 창조자들답게

강원도안의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고산과수농장 현대화공사에서 중요한 기술공급의 하나인 파일나무를 심기 위한 구멍이파기와 유기질 거름분기작업에서 새로운 위훈을 창조해나가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우리가 과수업발전에서 새로운 전환을 가져오면서 파일생산을 과학화, 현대화하여야 합니다.》

위대한 장군님의 말씀을 높이 받들고 고산과수농장 현대화공사장에 달려나온 618건설동맹대원들은 백두의 혁명정신으로 1단계 공사기간에 수백정보에 달하는 면적의 토지를 번듯하게 정리해놓았다.



공공시설에 제시된 전투적업무를 높이 받들고 철광석생산에서 혁신을 일으키고있다. -무산광산연합기업소에서-

# 자위적국방공업건설의 초행길에 올린 력사의 총성

## 평 천 혁 명 사 적 지 에 어 린 불 멸 의 자 육

민족반대의 번영을 소리쳐부르며 강대국승리의 나날들이 장엄하게 흐르고있다.

선군이 얼마나 귀중한가를, 선군이 얼마나 이 땅의 소중한 모든것을 지켜주고 빛내어주는 영원한 보금이라는 진리를 심장으로 새겨안으며 우리는 지금 사연깊은 력사의 한 지점에 서있다.

향일의 나날 일제의 100만대군을 취락파괴하며 건설적강력으로 명칭명치시던 우리 수령님께서 해방된 조국땅에 올리신 뜻깊은 총성이 오늘도 메아리치는 평천혁명사적지의 사적장!

아버이수령님께서 우리 로동계급이 만든 첫 기관단총으로 시험사격을 하신 추억깊은 그날로부터 어느덧 62년세월이 흘렀다.

주제적국방공업의 위력떨쳐며 친솔위인께서 올리신 그날의 총성이 있어 불멸의 대대로 자라난 백두산혁명강군과 누리에 빛나는 김일성조선의 오늘과 찬란한 배일이 있다는 긍지로 하여 우리의 가슴은 끝없이 높인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군수공업을 발전시켜 국방력을 강화하지 않고서는 나라의 정치적 독립과 민족의 자주성을 고수할 수 없으며 혁명의 전취물을 믿음직하게 보위할 수 없습니다.》

민족의 빛나는 존엄과 자주권, 혁명의 승리는 총대와 메아리듯 생각할 수 없다.

하기에 우리 수령님 해방된 조국땅에서 제일먼저 걸으신 길이 바로 총대강화의 길이었다.

나라의 국방공업 발전을 위해 크나큰 로고를 바치시는 백두산3대장군의 숭고한 모습을 형상한 모자이크화에서 평천혁명사적지관리소 소장 김순녀동무는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를 수룩 선전지명의 예지와 탁월한 령도력을 친솔모로 지니신 백두산위인들에 대한 흠모심이 반복적으로 일어났다.》

우리 수령님께서 강신길보다 먼저 걸으신 이 평천길이 있어 수령결사옹위의 총대술이 무성하게 자라나고 현

대적인 공격수단과 방어수단을 다 갖춘 영웅적무장력의 오늘이 있는것이 아니겠습니까.》

그의 말은 우리로 하여금 주제적국방공업발전의 초행길을 앞장에서 헤쳐오신 백두산위인들의 불멸할 업적을 추억깊이 되돌아보게 하였다.

당창건을 며칠 앞둔 주제 34(1945)년 10월초 어느날 몸소 평천땅을 찾으신 그날의 잠초만이 무성한 험한 길을 걸으시며 첫 병기공장의 터전을 잡아주시고 그것을 토대로 하여 앞으로 나라의 병기공업을 확대발전시키실 의지를 피력하신 그때로부터 위대한 수령님께서 국방공업발전을 위해 기술이신 헌신의 로고를 무슨 말로 다 헤아릴수 있으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창건된 첫날이었던 주제 37(1948)년 10월 12월 12일이었습니다.

이날 평천길은 크나큰 감격과 기쁨으로 뒹겨버졌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우리 로동계급이 자체의 힘으로 만든 기관단총을 시험사격하기 위하여 몸소 사격장에 나오셨던 것입니다.

얼마나 기다리고기다리던 뜻깊은 시간이었던가.

만면에 환한 미소를 담으시고 총을 만드는데 참가한 로동자, 기술자들에게 감사의 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 사격장의 총가에서 해빛에 반짝이는 기관단총 한挺을 손에 드시었다.

그리 시고는 총을 아주 잘 만드셨다고, 오늘 우리는 슬기롭고 지혜로운 우리 조선인민의 위력을 전세계에 자랑하게 된다고, 바로 이 총에는 슬기롭고 용감한 조선인민의 재능과 불요불굴의 혁명적투쟁 그리고 항일혁명선열들의 붉은 피가 스며있다고 말씀하시었다.

이윽고 아버지수령님께서는 동무들이 만든 총을 어찌 한번 쓰아 보자고 하시면서 수수한 사격탁에 앉으시며 몸소 기관단총을 틀어잡으시고 력사적인 시험사격을 하시었다.

《방, 방, 방》 백두산위인께서 쓰신 아무런 총성이 해방조국의 하늘가에 울려퍼졌다.

진정 그것은 주제적국방공업의 탄생을 알리는 총성이었으며 총대로 개척되고 승리해온 조선혁명을 영원히 총대로 빛내여갈 선조전신의 의지가

담긴 력사의 장엄한 메아리였다.

사격을 마친시어 아버지수령님께서는 사격탁에 앉으시어 기관단총을 끌어 보시면서 우리가 항일무장투쟁을 할 때 총 한자루를 얻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렸는가고, 그런데 오늘은 이렇게 자체의 힘으로 무기를 만들게 되었으니 얼마나 좋은가고 하시며 무엇보다도 제힘으로 하였다가는 정신이 중요하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었다.

그 순간 우리 수령님의 안광에 어찌 비껴들지 않았으랴.

총 한자루를 얻기 위해 이국의 땅에 피를 흘리고 목숨바친 투사들이여 사를치는 강물속에 떠내려가면서 《동지들! 이 총을 받아주소!》라고 목메어 웨친 전사의 그 모습!

이어 항일투사들과 함께 목표물을 나가시어 총의 명중률과 집중성을 친히 알아보신 위대한 수령님께서 앞으로 이런 훌륭한 총을 더 많이, 더 잘 만들어 인민군대뿐아니라 전체 인민을 무장시켜야겠다고 하시면서 활짝웃음이 담백하던 전체 인민이 손에 무장을 잡고 떨치지어나 흰수투를 단번에 쓸어버려야 한다고 힘주어 말씀하시었다.

그로부터 6개월후인 주제 38(1949)년 6월 16일에 위대한 수령님께서 사격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와 어리신 백두산의 아들 김정일동지와 함께 다시 지금 사격장을 찾으시어 선군조선의 밝은 미래를 축복하는 력사의 총성을 연축 올리시었다.

총! 총대는 곧 자주고 민족의 존엄이기에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새 조국건설의 그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병기공장을 자주 찾으시어 종합적인 병기생산기지로 전진시키주시기 위해 크나큰 로고를 바치셨으며 이곳 로동계급에게 온갖 믿음과 사랑을 다 안겨주시고 그들의 가슴속에 총대의 심원한 진리를 심어주시고 아니라.

이것 또한 나날들의 총창과 더불어 늘부신 성과를 이룩한 우리의 자위적국방공업발전의 길에는 항일의 녀성영웅이신 김정숙동지의 끝없는 헌신의 자육도 뜨겁게 아로새겨졌다.

아버이수령님의 원대한 구상을 받드시고 병기공장을 수습시켜나 왔으신

그 나날 사연깊은 기관단총으로 뜻깊은 사격을 하시어 수령결사옹위의 총성이 이 땅에 더욱 메아리치게 하시었을뿐 아니라 끊임없는 사색과 열정, 친구모도 따르지 못할 자애로운 손길로 병기생산에서 나서는 문제들도 하나하나 가르쳐주시고 로동자들의 생활을 따듯이 보살펴주시던 백두산나장군 김정숙동지의 숭고한 모습이 천만의 칭찬을 올리고있다.

때로는 공장에서 걸린 문제를 해결하는것을 스스로 자신의 분공으로 맡아안아 남모르는 수고를 바치시고 때로는 100% 우리의 힘, 우리의 기술, 우리의 자력으로 기관단총을 만드도록 세심히 이끌어주시였으며 때로는 공장나맹원들의 예술공예도 보여주면서 나라의 병기공업창성에서 나성을 이 한몸 단단히 하라고 크나큰 믿음과 고무도 안겨주신 위대한 김정숙어머님입니다.

참으로 백두산위인들의 현명한 령도와 해빛같이 따사로운 사랑의 손길이 우리 로동계급의 지칠줄 모르는 힘과 지혜와 열정이 되었기에 해방후 나라의 병기공업이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기관단총이 아닌 수류탄, 박격포 등 위력한 무기와 탄약이 쏟아져나올수 있었으며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의 승리를 안아오는데 적극 이바지할수 있었다.

아버이수령님과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어머님께서 주제적국방공업발전에서 쌓아올리신 불멸의 업적은 오늘 독창적인 선군혁명사상과 로신을 제시하시고 빛나게 구현해나가는 현충명장 김정일장군의 무적필승의 선군정치에 의하여 확고하게 계승발전되고있다.

일찌기 아버지수령님께서와 김정숙어머님께서 올리신 총성의 세한 율리와 수령님께서 혁명을 하자면 총이 있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권총을 선물로 주신 그 심원한 뜻을 가슴에 새겨안고 그와 함께 시련한 현 혁명의 길을 승리적으로 헤쳐오신 우리 장군님.

총은 혁명가의 영원한 길동무이며 동지이다!

인민군대의 총창우에 평화가 있고 사회주의의 승리가 있다!

사람이 없는 살수 있어도 총알이

없는 살수 없다!

이 드물지 않는 신념과 의지로 심장을 불태우시며 친리방선초소들을 끊임없이 찾다찾으며 인민군장병들에게 열렬한 조국수호정신과 일당백의 전투적기상을 안겨주시는 령도하는 장군님의 정력적인 선군령도아래 우리 인민군대 무적의 김정숙동지의 숭고한 뜻대로 강화되어 나라와 민족의 존엄과 혁명의 전취물을 믿음직하게 지켜가고 있다.

지난날 화승총도 변변히 만들지 못하여 국력이 약한탓에 제국주의자들의 식민지로 전락되었던 우리 나라가 오늘은 정치사상강국, 군사강국으로 위용떨치며 과학기술의 종합적인 인공지구위성도 마음먹은대로 척척 확충되고 당당한 핵보유국으로 필수없는것은 아버지수령님의 고귀한 유산을 지켜 주제적국방공업발전에만나 신자적임을 드러내는 위대한 백두명장의 빛나는 예지와 탁월한 령도가 있기때문이다.

그러면 광장이 불어와도 끄떡없는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사회주의제도와 어린이들의 행복을 보면서도, 인민을 위한 거창한 창조물들이 이르는 곳마다에서 솟아오르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해방후 평천밭에 올린 력사의 총성을 들고 가장 어려운 때 우주로 날아오른 인공지구위성발사사격을 듣는다.

미제와 남조선호전파들의 계속되는 새 전쟁도발행동을 물거품처럼 만들어놓는 우리 군대의 위력을 보면서 찬탄군인이 더욱 절감한것은 무엇인가.

총을 쏘는 모습을 오면 언제나 필승불패이레는 것이다.

그렇다. 수령의 위대성은 곧 나라와 민족의 위대성이며 영원한 통성신영의 원천이다.

천재적인 군사적지략과 탁월한 령공술, 무비의 담력과 배양을 지니시고 세계정치흐름을 주도해나가는 세련된 정치선로이시며 백두산의 아들인시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계시기에 김정일민족의 미래, 내 나라, 내 조국의 앞날은 끝없이 밝고 창창하다.

본사기자 조성 남

군건설과 군사활동에서 철저한 사상론을 주장하시는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군인들의 사상교양사업에 특별한 관심을 돌리신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사람의 활동에서 결정적역할을 하는것은 사상의식이다.》

주제 94(2005)년 4월 24일이었습니다.

뜻깊은 건군절을 하루 앞둔 이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당중앙위원회 책임인원들을 몸가까이 불러주시었다.

건군절행사와 관련한 과업을 주실것이라는 생각을 안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계시는 곳으로 달려간 일꾼들은 뜻밖에도 청년들에게 좋은 소설파들을 많이 보내 줄데 대한 가르치심을 받게 되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혁명적인 소설은 청년들의 세계관형성발전에만 국한을 한다고 하시면서 청년들은 혁명적인 소설을 읽는 과정을 통하여 생활의 진리를 체득하고 혁명의 원리를 깨닫게 되며 높은 계급적자격을 가지고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위한 투쟁의 길에 나서게 된다고, 혁명적인 소설은 청년들에게 있어서 참된 삶과 투쟁의 교과서이며 길동무라고 말씀하시었다.

새 세대 청년들을 격려한 혁명가로 키우는데서 혁명전문화하는 높은 역할을 다스금 절감하게 하는 귀중한 가르치심이었다.

청년들은 진취성이 강하고 세기에 민감하며 정서가 풍부하기때문에 누구보다도 소설을 읽기 좋아한다.

청년시절에 읽은 소설은 나이가 들어도 잊 잊혀지지 않으며 그들의 성격발전과 사업과 생활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그러지만만 청년시절에 혁명적인 소설들을 많이 읽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선군시절 우리 혁명의 주력군이며 계급투쟁의 전초선에 서있는 군인

들에게 있어서 좋은 소설을 많이 읽도록 하는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이런 내용으로 말씀하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지난 시기 우리 군인들과 인민들속에서 널리 애독된 소설들을 군인들에게 보내주면 그들을 교양하는데 좋을것이라고, 군인들이 소설들을 읽으면 주인공들의 투쟁정신을 따라배워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에 대한 열렬한 사랑과 적들에 대한 불타는 적개심을 지니고 혁명의 전취물을 목숨바쳐 사수할 결의를 다지게 될것이라고 하시었다.

그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일꾼들에게 우리는 군인들이 혁명적인 소설들을 읽게 하는것을 실무적인 사업으로 대하지 말고 그들이 더 많은 소설을 볼수 있게 조건을 잘 보장해주어야 한다고 강조하시었다.

혁명당대의 위력은 본질에 있어서 사상의 위력이라는 지분을 지니고 군인들의 사상교양사업에 선자적인 관심을 돌리시는 경애하는 장군님.

소설파 하나를 놓고도 그것이 군인들의 사상사업에 적극 이바지되도록 이끌어주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이런 세심한 보살핌이 있어 혁명적인 소설책들을 출판하기 위한 전례없이 방대한 규모의 편집출판진행에 많은 부분이 뒷받침이 되었다.

그이께서 보내주신 혁명적인 소설책들은 전군인민들의 수뇌부와 사상과 신념, 정서와 습관에 깊이할 수 있게 하는 투쟁의 교과서, 정신적무기로 되었다.

사람들의 사상이 기본이라면 고, 군인들의 사상만 방대하면 무슨 일이 다할수 없다고 하시며 군인들의 사상교양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을 가져오도록 이끄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선군장정의 날과 달속에 전군이 사상의 강군, 신념의 강군으로 자라났고.

본사기자 백 영 미



선군령장을 높이 모시고 사는 긍지를 안고 태양의 성지로 발걸음을 다그치는 당사자들 —백두산혁명평천전적지에서— 본사기자 강 정 민 찍음

해방된 삼일포의 고요를 흔들며 백두산나장군 김정숙동지께서 올리신 총성이 세기를 이어 오늘도 우리 군대와 인민의 심장속에 수령결사옹위의 신념, 계속혁명의 진리를 새겨주며 새창에 메아리치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었다.

《김정숙 동무는 세상을 뒤흔치지만 그와 조국과 인민앞에 끝없이 빛날것입니다.》

수령결사옹위에 혁명의 승리가 있다.

강대국 건설의 최후승리를 눈앞에 둔 력사적시기에 친민의 신장속에 삼일포의 총성이 총진격의 나팔소리마냥 메아리쳐 다시금 높이 울려 퍼지는것도 바로 그때문이 아니라.

이것 또한 63년전인 주제 36(1947)년 9월 어느날 삼일포를 찾으신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께서는 한손에 총을 쥐시고 백발백중의 사격술로 목표물을 단번에 명중하시었다. 그날에 울려 퍼진 총성에 찬란하던 삼일포의

물결도 새창에 섰었고 산발이 뒤덮였던 단풍나무잎새들도 타듯이 붉은빛을 띄게 내뿜었다.

돌이켜볼수록 전설과도 같은 화폭이었다.

하지만 우리 군대와 인민이 세세년 날 삼일포의 총성을 잊지 못해하는것은 단지 백두산나장군의 뛰어난 사격술에 대한 메추때문만이 아니다.

지금도 조용히 귀 기울이면 력사의 그날 삼일포의 총성을 울리시며 수령결사옹위의 의지를 굳이 한대고 하시며 수령결사옹위의 신념을 더욱 굳히신 김정숙동지.

수령결사옹위의 길에 민족의 영원한 행복과 강성번영이 있다라는 진리를 뜨겁게 새겨주며 삼일포의 총성은 오늘도 천만 군민의 가슴속에서 새창에 메아리치고있다.

수령을 옹위하여 한생을 별처럼 빛내이신분!

바로 여기에 총대와 더불어 빛나는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한평생의 업적이 있고 그녀의 특출한 공적이 있다.

항일의 나날 한몸이 그대로 형세가 되고 방패가 되시어 위대한 수령님을 정치사상적으로 옹호하시고 목숨을 도보위 하시 김정숙동지이시었다.

수령의 안병속에 전사의 행복도 있고 민족의 찬란한 복도 있다는 투철한 인생관, 행복관을 지니신 김정숙동지께서 해방된 조국땅에서도 변함없는 호위전사, 총련 병사로 삶을 빛내이시였기에 삼일포의 메아리를 심장에 새기는 천만의 가슴 여져 뜨거운 격정으로 설레이지 않을수 있으랴.

인류력사의 갈피와 세계전쟁사를 거슬러보면 녀성의 몸으로 조국사투의 전장에 뛰어들어 한몸 강고히 바친 이야기들이 전해지고있다.

하지만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처럼 그렇듯 전쟁에 포의 총성은 영원한 승리의 메아리, 투쟁의 메아리로 선군조선의 하늘가에 더욱 높이 울려 퍼질것이다.

본사기자 리 금 분

# 현지도강행군길에 새겨진 사랑과 믿음의 이야기

## 최 상 의 영 예

은 나라의 이르는 곳마다에 서 땅에 드러는 로력선물들이 련이어 마려되고있던 지난 7월 어느날이었다.

이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완공된 대제조간지를 찾으시었다.

전망대에 오르신 그이께서는 평안하는 날마다를 가리키며 거창하게 뻗어나간 제방들과 일당무제하게 펼쳐진 간식지를 정겨운 시선으로 둘러보시었다.

그이를 우러르는 일꾼들의 심장은 불을 안은듯 뜨겁게 달아올랐다.

지난 기간 이곳을 찾고 또 찾으면서 건설자들에게 힘과 용기를 북돋아주시고 간식지건설을 다그치기 위한 방향과 방도를 환히 밝혀주시던 우리 장군님의 불멸의 로고가 되새겨졌기때문이었다.

한 일꾼으로부터 간식지에 새겨진 건설자들의 영웅적외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보고 받으신 그이께서는 이것은 당과 혁명에 끝없이 충직한 애국

세상에 이보다 더 큰 평가가 또 어디 있랴.

이날에 하신 그이의 뜻깊은 말씀에는 위대한 수령님의 유훈을 높이 받들어 산도 떠돌고 바다도 메우는 우리의 영웅적인민모두에게 안겨주시는 열화같은 사랑의 축복이 함뿍 어려졌다.

## 삼복의 무더위를 헤치시고

지난 8월 어느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찌는듯 한 무더위도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2. 8비날론연합기업소를 찾으시였을 때의 일이다.

아버이수령님의 령도업적이 깃들여있는 2. 8비날론연합기업소가 현대적으로 꾸러지고 비날론복조가 위임없이 쏟아져 나오고있는 자랑스런 모습을 보시는 그이의 안광에는 시종 찬란한 미소가 어려졌다.

그날 쉬임없이 흘러나오는 질 좋은 비날론을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도 보고 하시었다.

장군님께서도 환한같이 하얗고 명주처럼 부드러운 비날론솜이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 새겨진 사랑을 헤치시게 하겠는가

말씀하시었다.

이날에 하신 그이의 뜻깊은 말씀에는 위대한 수령님의 유훈을 높이 받들어 산도 떠돌고 바다도 메우는 우리의 영웅적인민모두에게 안겨주시는 열화같은 사랑의 축복이 함뿍 어려졌다.

## 크 나 큰 고 무

지난 9월 어느날이었다.

조국의 만년대부를 끊임없이 늘여가시기 위하여 불철주야의 초강도강행군길을 이어가시던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도 협상준비를 넘고넘어서 3월 5일청년평안을 찾으시였다.

전망성있게 꾸러놓은 채굴장과 울퉁불퉁한 철물재비들의 대형화, 신선한 공기 자른치는 선광장과 모든 생산공정의 CNC화, 마치 한쪽의 그림같은 문화주택들과 공명건축물들... 보는것마다 감탄을 자아내는 선경이어서 그이께서는 일꾼들에게 이 평안은 만점이 아니라 백만점이라고 말씀하시었다.

그러시고는 함울데 없이 완전무결한 사회주의리상촌을 가

기업소일꾼들은 인민들에게 더 큰 행복을 안겨주시려고 노력하고 있다.

장군님의 숭고한 뜻과 더 높은 비날론생산성과로 충직하게 받들어갈 불타는 맹세를 다지였다.

그날에 하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도 주제의 강성대국을 하루빨리 일떠세우 우리 인민모두를 세상에 부럼없이 잘 살게 하시려는 그이의 드립없는 의지가 뜨겁게 맥박치고있었다.

본사기자

어떻게든 애먼어기 강연부의 메아리

# 몸소 지펴주신 기술혁신의 봉화

위대한 당의 령도에 이 땅 그 어디에서 불어난 기적과 혁신이 일어났고있는 오늘의 장엄한 현실을 대할 때면 기술혁신의 봉화를 높이 추켜드시고 혁명적대고조의 새 력사를 펼쳐가시던 우리 수령님의 크나큰 로고와 심혈이 가슴뜨겁게 어려온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일성동지는 위인이 지닐수 있는 모든 품격과 자질을 가장 숭고한 높이에서 체현하고자하시는 결출한 위인이십니다.》

주제 50(1961)년 2월 어느날 위대한 수령님께서 나라의 석탄생산에서 중요한 몫을 차지하고 있는 안주탄광(당시)을 찾으시였다.

그 시기 우리 나라에서는 사회주의공업화의 기초가 완성되고 당이 제시한 제 1차 7개년계획의 웅대한 목표를 쫓기 위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져 인민경제의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서분을 더 많이 요구하고있었다.

하지만 석탄공업부문에서는 여

기에 발견을 맞추지 못하고 쓰러졌다.

일꾼들을 통하여 생산에 대한 기술적지대로 따라서지 못하고있는 현실을 구체적으로 로해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도 당시의 상황과 장래의 전망을 보시어

그후 당중앙위원회 제 4기 제 16차전원회의를 소집하신 아버지수령님께서는 이 력사적인 회의에 이력한 일꾼들을 불러주시고 그들이 이룩한 성과를 하나하나 들어주시고 나서 정말 수고하였다고 높이 치하하시었다.

그들의 대견하게 바라보시던 아버지수령님께서는 안주탄광에서 원동식재판기를 창안하고있어 성과를 하지 않았고 먼지와 연기도 나지 않게 되었다고, 유해로동이 무해로동으로 전변되고 생산능률

이 몇배나 높아지니 얼마나 좋은가고 하시면서 기쁨에 넘쳐 환한 미소를 지으시었다.

이윽고 장래를 둘러보시던 그이께서는 안주탄광동무들이 무슨 특별한 좋은 조건이 있어 그런 기계를 만들어냈는지 아니라고 하시면서 하자고 마 음치고 대중을 발동하듯 하던 못해낼 일이 없다고 힘주어 말씀하시었다.

은 나라가 보란듯이 내세워주시는 아버지수령님의 크나큰 사랑의 말씀을 받아안은 탄광일꾼들은 뜨거운 열정을 쏟으며 마음속으로 이렇게 하였다.

수령님, 수령님 아니시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런 성공의 봉우리에 올라설수 있었겠습니까!

정녕 아버지수령님의 현명한 령도가 있었기에 그후 안주탄광뿐만아니라 온 나라의 탄광에서는 기술혁신의 불길이 더욱 세차게 타번지게 되었으며 우리 나라에서 현대적인 탄광 계획의 새 력사가 펼쳐지는 력사적인 사변을 맞이하게 되었다.

김 영 훈

# 선군정치의 위대성으로

회협군 하단리당조직에서 당원들과 농업근로자들의 가슴속에 경애하는 장군님의 선군정치의 위대성을 더욱 깊이 심어주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을 실시하게 벌려나가고있다.

우선 당세포와 근로단체 조직 등에서 당분과 비롯한 출판물들에 실린 우리 당의 선군정치 위대성과 독창성, 생활력에 대한 자료들을 가지고 대중속에서 독보와 해설모임을 창설적으로 진행해나가도록 조직 사업을 짜고들고있다.

얼마간 농장의 제 작업에 간한 일꾼은 작업의 휴식시간을 리용하여 화신선진지사업을 힘있게 벌려왔다.

선군정치의 위력으로 조국번영의 일대 전성기를 열어 나가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불멸의 선군혁명도업적에 대하여 구체적 사실자료들을 들어 가며 이야기하는 그의 해설은 모두의 심금을 울려주었다.

이곳 당원들과 농업근로자들은 회협의 선군혁명론 혁명의 진두에 높이 모신 크나큰 긍지와 자부심을 심장깊이 간직하고 경애하는 장군님의 강대국건설구상을 더 높은 열풍생산성과로 받들기 위해 한사람같이 떨쳐나서고있다.

로동농민회 최 원 화

# 모든것을 인민생활향상을 위하여! 당의 경공업혁명방침 관철에서 자랑찬 성과를 이룩한 뜻깊은 해

## 주공전선에 대비역의 불길을 지피시며

생각할정도의 비용이 들지 않다면

인민생활대고조의 열풍이 세계 최후의 한가속적인 한해가 되었다. 생산공정의 현대화가 높은 수준에서 실현된 경공업공정들과 생산기지가 도처에 일떠서고 몇몇의 우리의 경공업제품들이 팽방 쏟아지는 혁신의 소식이 편이 편이 전해져 인민들모두가 기쁨으로 설레인 뜻깊은 한해였다.

돌이켜볼수록 인민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안고서 수도 평양에서 조국의 최북단으로, 북방의 한끝에서 서부지역으로 중흥주전선에서 찾아오는 공장, 기업소마다에 기적의 불씨를 안겨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이 가슴에 미쳐와 우리의 눈곱 끈적임에 젖어온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사회주의의 요구에 맞게 인민생활을 끊임없이 높이는 것은 우리 당의 일관한 정책입니다.》

지난 1월 위대한 장군님께서 경공업부문에 대한 올해의 첫 번째 지시와 지목을 평양밀가루공장장에 새기시었다.

찬바람부는 데스톤의 추위로 마다하지 않고도 대규모의 식료품공장을 꾸러진 공장을 찾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경사가 급한 층계도 몸소 오르내

리시며 여러 생산공정을 일일이 돌아보시었다.

우리 인민에게 맛있는 당과류를 마음껏 먹이시려고 수질이 좋은 곳에 몸소 공장부지도 잡아주시고 능력이 큰 설비들을 하나하나 들여다보아 갖추어 주신 아버지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이 새겨져있는 공장을 깊은 추억속에서 돌아보신 위대한 장군님께서 우리 인민의 식생활에서 더 큰 전환이 일어나도록 하시며 위대한 설비들을 펼쳐주시었다.

발전하는 현실의 요구에 맞게 모든 생산공정의 현대화를 최첨단 수준으로!

위대한 장군님께서 공장에서 생산공정의 현대화를 빠른 시일안에 실현하여 우리 인민들이 하루빨리 고기를 보게 하려야 한다고 강력히 가르치시었다. 공장을 떠나시어는 강력한 건설력량과 과학기술력량도 보내주시고 공사추진정형을 수시로 알아보시며 계기되는 문제들을 우선적으로 풀어 주신 우리 장군님.

위대한 장군님의 인민에 대한 뜨거운 사랑에 떠날수록 공장은 빠른 시간에 현대화수준이 높은 식료품공장으로 화려하게 전변되어가고 맛좋은 빵과 당과류, 국수가 대량생산되어 당장진 65톤을 넘는 우리 인민들을 기쁘게 해주었다.

뜻깊은 올해에 인민생활에서 결정적전환이 일어나도록 하기 위하여 불멸불후의 정력적인 활동을 벌이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지난 5월 평양도안의 여러 경공업공장들도 찾아주시었다. 머나먼 외국방문의 길에서 걸음만 피로도 풀사시어 배산빌딩공장을 찾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공장 인민들과 로동계급의 창조적지혜가 깃든 목이 긴 솜신발을 비롯한 여러가지 신발들을 유심히 보여주셨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목이 긴 솜신발을 천히 손에 드시고 아주 잘 만드셨다고, 목이 긴 솜신발을 림업부문 로동자들뿐 아니라 추운 곳에서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다 좋아하겠다고 매우 기뻐하시면서 신발의 질을 높여 《강강도살장》라고 하던 좋겠다고 그 이름까지 지어주시었다.

위대한 장군님의 인민에 대한 현실의 자애로운 조국의 최북단에 자리잡고있는 자강도의 여러 경공업공장들에도 뜨겁게 새겨졌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썰매를 만든 삼복의 무더운 날씨도 마다하지 않고서 유년창제기에 의한 신형공정들의 현대화가 높은 수준에서 실현된 9월말 직공장과 자기 고장에 환한 원

료원천으로 여러가지 식료가공품을 생산하고있는 장자산종합식료공장,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고있는 강계기초식료공장을 오랜 시간에 걸쳐 일일이 돌아보시었다.

생산을 높여 인민생활에 이바지하고있는 소식을 들으시고는 못내 기뻐하시며 치하하고 해주시고 더 높은 목표를 내걸고 고비하라고 고무도 해주시는 위대한 장군님을 우리로써 여러 공장의 인민들이 다진 심장의 맹세는 무엇이었든가.

—한생애 인민의 참된 행복으로 살리라!

이런 심장을 심장에 새긴 자강도의 인민들이 창조의 기수가 되어 걸출한 인민소비품생산으로 대오를 이끌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함경남도 인민소비품전시회장을 찾으면서 도안의 인민들과 근로자들이 만든 여러가지 소비품을 보여주신 소식은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예외와 가능성을 최대한 동원하여 쓸모있는 대중소비품을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한 열의로 부름같이 뛰어 버니게 한 원동력이 되었다.

그로부터 얼마 후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생산공정의 현대화가 훌륭히 실현된 평양곡산공장을 또다시 찾으셨다.

현대화가 높은 수준에서 실

현된 일터에서 사랑으로, 과자 폭포가 쏟아지는 모습을 보아 주시며 인민을 위한 또 하나의 식료품생산기지가 일떠선것이 못내 기쁘시어 오래도록 현장을 떠나지 못하는 우리 장군님.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날 생산공정의 CNC화가 실현되고 위생문화, 생산문화가 높은 수준에서 보장된 여러 생산공정들을 돌아보시면서 생산을 정상화하여 인민들이 그 덕을 보게 하려야 한다고 거듭 지시하시었다.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경애하는 장군님의 정력적인 령도는 창조성과 합성, 무산공과 회령시, 또다시 평양시안의 지방공업공장들로 끊임없이 이어졌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창성평에서 지어주시신 지방공업혁명의 불길은 지금 온 나라에 활화산처럼 타올라 어디서나 자기 고장의 특성에 맞는 특색있는 소비품을 생산하기 위한 투쟁이 활발히 벌어지고있다.

당장진 65톤을 성대히 경축한 올해에 이룩한 성과를 굳지높이 이어나가도록 각지 경공업공장의 인민들과 근로자들은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령도업적을 증산성으로 빛내어 갈 불타는 결의에 넘쳐 전진속도를 더욱 높이고있다.

본사기자 리 철 욱

이제 위한 투쟁을 신속이 개 별려야 합니다.》

당장진 65톤을 성대히 경축한 뜻깊은 올해에 인민생활에서 결정적전환을 이룩할데 대한 당의 전투적소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경공업부문 인민들과 근로자들은 인민소비품의 가치수를 높이고 질을 높

이제 위한 투쟁을 신속이 개 별려야 합니다.》

당장진 65톤을 성대히 경축한 뜻깊은 올해에 인민생활에서 결정적전환을 이룩할데 대한 당의 전투적소

이제 위한 투쟁을 신속이 개 별려야 합니다.》

당장진 65톤을 성대히 경축한 뜻깊은 올해에 인민생활에서 결정적전환을 이룩할데 대한 당의 전투적소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경공업을 현대화하는 것은 경공업공정들을 최신과학기술로 장 비하여 생산능률과 제품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소비품에 대한 인민들의 수요를 더욱 원만히 충족시키며 경공업부문 근로자들을 힘든 로동에서 해방하기 위한 중요한 사업입니다.》

공공사업의 전투적업무를 받들고 올해에 경공업부문, 식료일용공업부문에서는 현대화와 기술개진사업에서 자랑찬 성과를 거두었다.

이제는 얼마이 부문을 일꾼들을 만나 경공업의 현대화실현을 위한 투쟁에서 주목되는 몇가지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었다.

기자: 올해에 경공업부문에서 중심과제를 바로 잡고 기술개진, 현대화사업을 성과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생각한다.

경공업성 부상 허 태권: 위대한 장군님께서 선공정의 길에서 수많은 경공업공정들을 현지지도하시면서 경공업의 현대화실현방도를 환히 밝혀주시고 결실결실을 손잡아 이끌어주시었다. 올해에 우리 경공업에서는 하나의 생산공정을 현대화하여도 정보산업시대의 요구에 맞게 최상의 질적수준에서 진행하는데 선차적인 관심을 두었다.

여기에서 우리가 들어준 중요한 고려는 최첨단과학기술을 받아들인다고 하여 남의것을 그대로 본떠려 하지 않고 우리의 실정에 맞는 우리식의 현대화를 실현하도록 한 것이다.

식료일용공업성 부상 김영관: 위대한 장군님께서 높이 평가해주신 평양곡산공장의 경우만 놓고보아도 현대적인 당과류생산공정의 CNC화는 철두철미 우리의 실제, 우리의 기술로 우리 실정에 맞게 실현한 현대화의 자랑찬 열매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다.

기자: 당장진 65톤에 드리는 로적전선물로 마련된 현대적인 경공업기지와 식료가공기지가 커다란 은을 내고 있다고 본다.

경공업성 국장 김병오: 다 아는 것처럼 위대한 장군님의 크나큰 은정속에 일떠선 평양양말공장 너자양말직공장은 근로자들의 기호에 맞는 뽀시 있는 갓까지 양말들이 많이 생산되어 호평을 받고있다. 또한 평양방직공장의 인건현 생산기지, 신의주방직공장의 편직사생산지과와 각지 신발공장, 방직기계공장에서 새로 꾸러진 현대적인 생산공정들도 시운전을 성과적으로 진행해 오고 있다. 그러하여 다음해에 경공업제품생산을 더욱 늘릴 수 있는 물질기술적비를 원만히 갖추었다.

식료일용공업성 부원 김영경: 올해에 각 도에서 조립된 종합식료공정들의 일꾼들과 로동자들도 생산을 높여 인민생활향상에 적극 이바지하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현지지도하신 장자산종합식료공장, 배운산종합식료공정들의 CNC화된 생산공정들에서 갖가지 식료가공품들이 힘없이 생산되고

있으며 백송종합식료공장, 수성종합식료공장 등 각 도의 종합식료공장들에서도 최첨단들과편이 힘있게 벌어지고 지방의 특성에 맞는 특산식료품생산을 끊임없이 늘어나고있다.

기자: 경공업의 현대화실현에서 최첨단과학기술을 받아들이기 위한 사업을 방법론있게 짜고드는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경공업성 국장 김병오: 올해에 성에서 당의 과학기술중시노선을 틀어쥐고 현대화의 실현방도를 과학적으로 명백히 세웠다. 그중에서 놓치지 않고 내세우려는 철저히 실리의 원칙에서 우리의 현존생산대비를 공고히 하면서 최첨단과학기술과 파를 실정에 맞게 받아들이도록 한 것이었다. 원산주공장과 신의주방직기계공장을 비롯한 많은 경공업공정에서 이미 있는 설비들을 CNC설비로 기술개진하기 위한 투쟁과정에 이룩한 성과는 우리의 생산잠재력을 효과적으로 리용하면서 현대화사업을 근기있게 내밀면 어디서나 최첨단을 돌파할수 있다는 신심을 안겨주었다.

식료일용공업성 부상: 지식경제시대에 오늘 최첨단들과편은 어느 한두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다. 올해에 우리가 실현한 평양밀가루공공정들의 현대화의 경험을 놓고보아도 과학자, 기술자, 로동자들의 창조적열정을 강화하는 여기에 최첨단들과편의 위력적 생활력이 있다는것을 실천으로 증명해 주었다.

인민생활대고조의 해인 올해에 수많은 경공업공정들이 현대화된 자랑찬 성과속에는 대고조시대의 창조적 열풍들이 파도처럼, 기술자들의 승은 노력이 뜨겁게 깃들었다.

본사기자 명 흥 숙

올해에 우리의 지방공업은 급속한 발전의 길을 걸었다. 각지 지방공업공정들에서 생산공정의 현대화가 적극 추진되고 지방의 특성에 맞는 갖가지 질 좋은 소비품들이 생산되어 인민생활향상에서 전환이 일어났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경공업혁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지방공업을 발전시키는데도 큰 힘을 쏟아야 합니다.》

올해에 각지 시, 군들에서는 지방의 원료원천을 효과적으로 리용하여 지방공업공정들을 만 부하로 돌리기 위한 투쟁을 년 초부터 힘있게 벌여왔다.

한편, 초산군, 연천군을 비롯한 많은 군들에서 자기 고장에 있는 원료와 저예비비를 적극 찾아내어 소비품생산을 끊임없이 늘였다.

인민소비품의 가치수도 부쩍 높아졌다. 각지 지방공업공정의 인민들과 근로자들은 창의 창발성을 높이 발휘하여 자기 고장의 특성에 맞는 특색있는 품종을 찾아내기 위한 사업을 경쟁적으로 벌여 인민들속에서

호평받는 소비품들을 많이 생산하였다.

평양시안의 경공업공정들에서 소비품의 가치수를 높이기 위한 투쟁을 이룩하며 벌려 질 좋고 쓸모있는 소비품들을 많이 생산하였다.

동원공예작물공공정에서는 공예작물로 갖가지 일용품뿐만 아니라 승리를 비롯한 각종 식료품까지 만들어냈으며 시안의 많은 공장들에서 제품의 가치수를 지난 시기보다 비 할바없이 높였다.

신의주주물생생협동조합의 인민들과 종업원들도 지방의 원료원천을 효과적으로 리용하여 인민들속에서 수요가 높은 갖가지 초물제품들과 세소상품들을 쓸모있게 만들어 인민생활향상에 큰 보탬을 주었다.

생산공정의 현대화를 다그쳐 많은 지방공업공정들이 발전하는 시대의 요구에 맞게 그 면모를 일신하였다.

각 도에 꾸러진 현대적인 종합식료공정들에서 갖가지 식품이 쏟아지고있는 소식은 대고조전진을 다그치고있는 우리 인민을 기쁘게 해주었다.

맹산군, 리천군을 비롯한 여러 군들에서는 지방공업공정들의 현대화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에 큰 힘을 들여 깊고하고 살리려는 생산공정부터 하나씩 하나씩 현대화를 다그쳐왔다. 결과 인민소비품생산을 비약적으로 늘이고 그 질을 훨씬 개선할 수 있는 물질기술적태가 튼튼히 마련되었으며 주민들이 그

덕을 보고있다.

지금 모든 시, 군의 지방공업공정들의 인민들과 종업원들은 머나먼 창성평을 찾으면서 세 세기 지방공업혁명의 불길을 지켜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애국적인 호소에 화답하여 인민소비품생산에서 결정적전환을 일으킬 불타는 열정으로 화를 내고있다.

자기 지방의 특성에 맞는 제품생산량을 부단히 늘여 근대 살림살이를 향상시켜나가는 공지 보람에 넘쳐있는 지방공업부문의 인민들과 근로자들, 이들의 혁명적열정에 의하여 줄수준 지방공업공정들에서는 종산의 동음이 더욱 높이 울릴것이다.

본사기자

문덕군 립석협동농장이 최근 농사일을 비롯하여 모든 면에서 혁신 단위로 된 중요한 비결의 하나이다. 리당위원회 일꾼들이 어머니다운 마음을 가지고 사립과의 사업을 실속있게 벌려온데 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마음의 《문》을 열어 제끼는 모술은 어머니다운 진심을 버치는 것이다.》

청년작업반이 처음 조직되었을 때만 하여도 오늘날처럼 전투력이 높지 못하였다.

어떻게 하면 청년작업반을 쇠스라고 정쟁 나는 전투적인 집단으로 만들 것인가.

리당위원회는 문제해결방도의 하나를 일꾼들 특히 당일꾼들부터 어머니다운 심정을 가지고 청년작업반을 중심으로 하는 데서 찾았다. 일꾼들은 청년작업반에 나가 청년들의 심리특성에 맞게 학습도 새로 꾸려주고 여러가지 도구들과 문화기재, 체육구구들도 마련해주었다.

그들이 새살림을 꾸리게 되었을 때에는 결혼상반이나 살림집과 부엌세간도 마련해주면서

마음의 《문》은 진심이 연다

문덕군 립석리당위원회 사업에서

청년부들의 정을 어떻게 끌어내었는지 모르겠다. 하지만 언뜻 청년들은 은근히 도시를 넘겨다보면서 농사일에 마음을 붙이지 못하고 있었다. 그때 때로 리당일꾼들은 그들을 찾아가 전에 자기들이 바치는 진심의 깊이를 재어보면서 신심을 잃지 않았다.

청년작업반원들이 바라는것이 리당 그 무엇도 아끼지 않아야 한다는것이 리당일꾼들과 관리 일꾼들의 심정이었다. 청년들을 위한 일꾼들의 어머니다운 심정은 일사부작의 생각을 하고 있던 일부 청년들의 마음을 점차 움직이게 하였다. 그들은 일꾼들을 찾아와 속마음을 터놓으면 새로운 결의를 다지었다.

자신을 꾸우치고 스스로 찾아와 용기를 버는 자식의 뺨에 손대를 내어놓는다. 그들은 일꾼들은 청년작업반원들이 영생실현을 비롯한 모든 면에서 능동의 맨 앞장에서도 똑똑히 잘 이끌어갔다. 마음을 합치고 분발해나선 그들의 힘은 놀라울 정도였다. 그 후 청년작업반은 해마다 농사일에 앞자

리를 차지하였으며 3대혁명붉은기단위로 자리매김되었다. 리당일꾼들은 청년작업반원들만이 아니라 모든 농장원들에게도 뜨거운 진정을 바치었다. 제5작업반의 정동무는 농기계 물레가 밟아 사람들로부러 좋은 평을 받았다. 하지만 그의 열정은 언제 보아도 환한 기색이 띠지 않았다. 리당일꾼은 작업반소속일꾼들과 농장원들을 만나 그 원인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이 파편에서 지난 시기 일사부작의 길은 걸지 못하였으므로 하여 마음을 써오고있다는것을 알게 되었다. 리당일꾼은 정동무의 일을 자기 단위의 일로 여기고 그 세로운 힘과 용기를 가지고 맡은 일을 책임지고 맡아 나가자고 약속하였다. 어떤 날에는 그와 함께 농기계도 수리하고 퇴근길도 걸으면서 많은 이야기를 해주었다. 이런 날이 반복되면 점차 정동무는 자기의 속생감을 숨김없이 터놓게 되었다. 리당일꾼은 그에게 당원은 어떤 사람이 될 수 있으며 또 당

원은 어떻게 살든 투쟁하여야 하는가를 말해 주면서 우선 말은 일에서 혁신을 일으키기 위한 방도를 토론 해주었다. 그 후 그는 당조직과 일꾼들의 진정인 방도를 의하여 조선로동당원으로서, 혁신자로 자리매김 되었다.

일꾼들의 진심은 한 특유영예군인의 가정에도 깊이 있었다. 리당일꾼은 자기 살던 살림집을 특유영예군인에게 양보하여 그가 병치료를 보다가 전하고 편치료를 할 수 있게 하였다. 일꾼들의 진심은 말없는 정치사업으로 되었다.

청년군농장에서는 자체의 힘으로 농사를 지으면서도 농장부리에서 많은 일들을 해 제끼었다. 오늘이 농장은 아무리 어려운 파업이 제기되어도 모두가 한사람같이 떨쳐나 제때에 집적으로 해제키는 전투적인 단위로 되고있다.

이 단위 일꾼들의 사업은 실장으로 통하는 유일한 《홍명중》도 그리고 마을의 《대문》을 열어제끼는 모술도 어머니다운 진심을 바치는데 있다는것을 다짐을 잘 말하여주고있다.

본사기자 최 시 흥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석탄생산을 늘이는것은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 생산을 정상화하며 인민생활을 높이는데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박천군에서는 지난 10여 년간 해마다 석탄생산계획을 넘겨 수행하여 군안의 지방공업공정들을 만 부하로 돌리고 근대 주민들의 석탄 수요를 충족시키는데 크게 이바지하고있다.

여기에는 석탄생산을 함께 책임진 립장에서 탄광을 성심성의로 도와준 박천군 일꾼들과 주민들의 헌신적 노력도 깃들여있다.

박천군의 일꾼들과 근로자들은 누구나 박천탄광을 군의 인민생활을 향상시키는데서 생명선이라고 말한다.

—인민생활향상의 생명선! 탄광에 대한 관심이 바로 이렇게 서있기에 군의 책임일꾼으로부터 아예 일꾼들이 일기까지 모두가 생산을 자기 일처럼 여기고 탄광을 함께 책임진 주민들은 립장에서 적극 도와주었다.

이렇게 도와주니 얼마나 좋은가

탄광지원사업을 잘하고있는 박천군 일꾼들

군에서는 지원장을 개진하는데 필요한 자재들을 군중적으로 마련하여 보내주면서 일꾼들을 내보내어 탄부들의 혁명적열의를 불태워주기 위한 정치사업을 활발히 진행해 오고있다.

탄광의 일꾼들과 탄부들은 군의 적극적 지원을 받으면서 충천한 기세로 지원장개공사업을 힘있게 다그쳐 짧은 기간에 탄광을 개공사업을 위한 지리한 전투를 벌였다. 그리하여 개공사업을 짧은 기간에 끝내고 석탄생산을 정상화할 수 있게 하였다.

군의 일꾼들은 탄광에 자주

지원장개공사업을 위한 지리한 전투를 벌였다. 그리하여 개공사업을 짧은 기간에 끝내고 석탄생산을 정상화할 수 있게 하였다.

군의 일꾼들은 석탄생산을 함께 책임진 주민다운 립장에서 탄광을 적극 도와주면서 석탄생산의 직접적담당자인 탄부들의 생활에도 깊은 관심을 돌리고있다.

군인위원회에서는 자주 탄광사업과 관련한 문제를 가지고 일꾼들의 협의회를 조직하고 석탄생산에 필요한 소공구들은 물론 탄부들의 생활에 절실히 필요한 생활필수품을 제때에 보장하도록 적극적인 대책들을 세우고있다.

지난 시기 군에서는 해마다 국가적명절을 계기로 탄광의 탄부들을 군내 데려다가 축하공연도 보여주면서 석탄생산에서 위훈을 떨친 그들을 적극 고무해주었다. 그리고 탄부들이 탄광으로 돌아갈 때에는 군내 인민들의 성의가 깃든 많은 지원물자들을 안겨주었다.

군일꾼들과 인민들의 뜨거운 마음과 지성에 고무된 탄부들은 석탄생산으로 인민생활향상에 이바지할 드넓은 열의밑에 맡은 일에 지혜와 열정을 다 바쳐가고있다.

특파기자 김기 두



위대한 장군님의 뜨거운 사랑이 인민들에게 하루빨리 가닿게 하기 위하여 생산을 힘있게 다그치고있다. —신의주방직공장에서— 신 흥 욱 찍음



# 정세 파국을 몰아오는 위험한 전쟁세력

# 사태를 악화시키는 도발적 언동

지금 세계 여론은 미국과 남조선피괴들의 무모한 군사적도발행동에 맞서 압도적 고도의 긴장상태가 조성된 조선반도에 쏠리고 있다.

피괴호전광들은 연평도 주변 우리측 해역에 수천발의 포사격을 가하였다가 옹당한 징벌을 받으면서 교훈을 찾아 대신 오만무례하게도 우리에게 대한 군사적도발의 도수를 더한층 높이는 데로 나가고 있다. 그들은 그 무슨 《도발》과 《정전협정위반》에 대해 떠들면서 일대 반공화국판공국을 연세하고 있다. 피괴군부호전광들은 이른바 《교전수칙》을 끌어고치고 항공무력학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할 것이 아니라니, 평양을 비롯한 공화국내륙의 전략적대상들을 《공격》할 것이 아니라니 하는 극단적인 망발까지 서슴치 않고 있다. 남조선당국이 이번 연평도포격사건이 마치 두 우리때문에 일어난 것처럼 여론을 오토라는 것은 엄중한 군사적도발을 감행한 저들의 범죄적책임을 어떻게 하나 모면하고 보다 대규모적인 무장도발사건을 일으켜서 기어이 북침전쟁의 불을 지르려는 기도의 망발이다.

도발은 제가 하고 세계 여론을 향하여서는 남이 도발하였다고 곁고드는 것은 남조선통치배들이 우리를 모해하기 위해 상투적으로 써먹는 수법이다. 도발로 말하면 미국과 남조선호전세력의 전용물로서 그것은 우리와는 아무런 관계도 없다. 연평도포격사건은 철두철미 미국의 배후조종하에 남조선호전광들이 사전에 면밀하게 꾸이고 의도적으로 감행한 반공화국도발사건이다. 이번 연평도포격사건의 엄중성은 무엇보다도 그것이 우리의 군사적총돌을 일으키기 위한 고의적인 선봉질이 되었다는 데다.

문제의 수역으로 말하면 우리측 명

해이며 지난 시기 여러차례 북과 남의 군사적총돌이 일어난 매우 예민한 수역이다. 남조선군부제거자들은 《북방한계선》과 《서해 5도》를 《망어》한다는 구실 밑에 연평도와 그 일대에 전략무력을 집중적으로 배치해놓았다. 문적이 불과 몇km밖에 안되는 자그마한 연평도에는 피괴해병대련과 한계중대이상의 《K-9》차형포무력, 수 많은 탐지수단과 정보통신시설들이 쏘 들어차 있다. 이런 곳에서 우리측 명해에 포사격을 해대는 것은 화약고에서 불장난을 하는 것만지니 위험한 것이 아니다. 사실상 피괴들이 연평도를 거점으로 하여 우리측 명해에 수천발에 달하는 포탄을 날린 것은 우리의 군사적대응을 유도하기 위한 의도적인 도발이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우리는 남조선군부가 《호국》혼련의 일환으로 항시 긴장감이 떠도는 연평도수역에서 포사격을 벌릴 계획을 발표했을 때부터 그것이 틀어질 수 없는 후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는 데 대해 경고를 울리고 그것을 견어치 않을 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그리고 끝내 그 수역에서 포사격혼련이 감행되는 경우 그것을 공화국의 자주권에 대한 엄중한 침해행위로 간주하고 즉시 무자비한 대응타격을 가할 것이라는 데 대해서도 엄숙히 경고하였다. 이것은 어떻게 하나 이 수역에서 군사적총돌을 방지하려는 우리의 적극적 인 노력의 표시였다.

남조선군부제거에 만약 군사적총돌을 일으킬 의도가 없었다면 우리의 경고를 무시할 이유가 없고 우리측 명해에 포탄을 들붓는 것과 같은 무분별한 행위를 감행할 조건이 없다. 동족에 대한 적대감이 끝수에 깔리지 않고 북침전쟁에 환장한 자들이니 까닭에 서슴

없이 우리측 명해에 포사격을 가하였던 것이다. 그들은 북남사이에 군사적총돌이 일어났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선봉질을 해대었다. 바로 여기에서 이번 연평도포격사건의 엄중성과 위험천만한 기도가 드러나고 있다. 이번 연평도포격사건을 통하여 내외여론은 누가 도발자이고 누가 정의의 수호자인가, 누가 전쟁을 추구하고 누가 평화를 바라는가 하는 것을 다시금 똑똑히 알게 되었다.

남조선피괴들이 아무러 그 누구의 《도발》이니, 《위반》이니 하고 떠들어도 진실은 가려지지 못한다. 도발자들은 그 무엇으로써도 우리측 명해에 포사격을 가하여 위험천만한 무장총돌사건을 일으킨 저들의 범죄적책임을 모면할 수 없다.

연평도포격사건의 엄중성은 또한 그것이 북남관계의 전면파괴와 북침전쟁도발을 노린 계획적인 도발이었다는 데 있다. 이번 사건을 기화로 피괴들이 광범적으로 벌리고 있는 대결전쟁소동도 그것을 받게 된다.

남조선호전광들은 연평도포격사건이 터지자 때를 기다렸다는 듯이 미해항공모함전단을 서해에 끌어들이며 최대규모의 해상연합훈련을 광범적으로 벌리고 있다. 이어 조선동해와 서해, 남해의 무려 29곳에서 도발적인 사격혼련을 감행하여 정세를 더한층 격화시키고 있다. 이어 호전광들은 연평도에서 다시금 전면도발과 똑같은 방향으로 우리측 명해에 포사격을 가할 것이라고 공공연히 떠들고 있다. 이것은 그들이 연평도포격사건에 대대하여 보다 큰 규모의 무력총돌을 일으키고 그것을 구실로 대대적인 《반격》을 가한다는 이른바 《복보계획》의 실행, 다

시말하여 전면전쟁도발의 길에 이미 들어서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피괴배당은 이미 미국과 작당하여 각종 북침전쟁공격작본들을 꾸며놓고 호시탐탐 그것을 실현행동에 옮길 기회를 엿보고 있다. 이제 그들에게 남은 것이라면 연평도포격사건을 초월하는 무장도발을 감행하고 그것을 기화로 제2의 조선전쟁도발에 불을 다스것본이다. 지금 남조선군부가 이른바 《사위권행사》니, 《선조치, 후보치》니 하는 호전적책임을 편일 늘어놓으며 연평도를 비롯한 서해 5개 섬에 공격무력을 집중시키고 그것을 요새화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미일상전포와 교류를 맺고 그 누구의 《추가도발》에 대비한 《공동대응방안》을 모의하고 있는 것은 북침전쟁도발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자들만이 할 수 있는 위험한 망동이다.

남조선호전광들의 무분별한 군사적도발소동으로 하여 지금 조선반도정세는 극한상태에 초치되고 있다. 조금만 다쳐도 터질듯한 팽팽한 정세가 언제 전쟁소동으로 번져질지 누구도 예측할 수 없다.

남조선호전광들은 입이 열려라도 우리의 정당한 자위적대응조치를 곁고들 수 없으며 특대형도발사건을 일으켜 조선반도의 정세를 일촉즉발의 초진장상태로 몰아간 범죄적책임을 벗어날 수 없다.

남조선당국자들이 외세를 등에 업고 동족을 무력으로 해치는데서 살 길을 찾으려 하는 것은 어리석은 망상이다. 그들이 우리를 해치려고 악을 쓰면 쓸수록, 반공화국해구과 북침전쟁도발소동에 광분하던 갈수록은 민족과 세계 앞에 저들의 호전적정제만을 더욱더 드러내게 될 것이다.

염 일 규

피괴통일부 장관 현인택이 돌인지 불인지 모르고 헐대비고 있다. 얼마전 그 무슨 《학술회의》라는데 나타난 현인택은 연평도포격사건을 입에 올리면서 《최악의 선택》이니 뭐니 하고 우리를 심히 자극하는 수작을 늘어놓았다. 나중에 그 무슨 《자유와 인권》,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운운하며 그것을 《가치》로 하여 조선반도의 《미래를 주도적으로 설계》해 나가야 한다는 망발까지 제쳐뒀다.

지금 남조선에서 우리를 적대시하며 대결을 선동하고 전쟁을 부추기는 극단적인 폭언을 내뿜는 자들이 한둘이 아니다. 하지만 현인택도 처럼 그렇듯 팽성적으로 우리를 곁고들며 대결의 입선에서 무모하게 날치는 자는 찾아보기 힘들다. 역으로 이번 망발을 연평도포격사건의 책임을 어째든 하나 우리에게 넘겨져야 하고 대결전쟁소동을 더한층 강화하여 끝수에 빠진 《제제통일》 야망을 기어이 실현하기 위한 총성을 그대로 드러내놓은 것이다.

남조선호전광들의 연평도포격사건으로 하여 북남관계는 이미 수습하기 어려운 정치군사적대결의 극한점에 이르렀다. 이 엄중한 사태에 대해 내외여론은 심각한 우려를 금치 못하고 있다. 이러한 때에 현인택이 또다시 머리를 쳐들고 《최악의 선택》이니, 조선반도의 미래에 대한 《주도적설계》니 뭐니 한 것은 사태악화를 부추릴 뿐인 극히 무분별하고 도발적인 망동이 아닐 수 없다.

맹목하게 드러나바와 같이 연평도포격사건은 북남관계개선분위기를 산물을 끼었고 북침전쟁도발의 합법적수위를 마련하기 위해 피괴호전광들이 미국의 비호와 부추김 밑에 계획적으로 도발한 것이다. 이것을 놓고 현인택도 그 까무러 우리를 곁고들며 감히 《최악의 선택》이니 뭐니 하고 수작질한 것은 파멸치까지 그치지 않다.

연평도포격사건이 전까지던 해도 북남사이에 대한 대화와 관계개선의 여지는 있었다. 우리는 흠이던 가족, 친척상봉을 계기로 마련된 북남관계개선의 분위기를 적극 살려나가기 위해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하였다. 대결이 아니라 대화와 관계개선을 지향하고 있었기에 우리는 남조선

호전광들이 연평도대대에서 우리측 명해를 향해 포사격혼련을 강행하려고 할 때 그것이 북남관계와 조선반도정세에 미칠 파괴적영향을 우려하여 그 철회를 강력히 요구하였다. 하지만 호전광들은 우리의 거듭되는 경고를 외면하고 끝끝내 포사격도발을 강행하고야 말았다. 이것은 대화와 관계개선을 거부하고 최악의 선택을 한 것이 다름아닌 피괴들 자신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었다.

현인택역도 그 무슨 《인권》과 《시장경제》를 운운하며 조선반도정세를 《주도적으로 설계》해나갔다고 떠들며 연평도 포격사건을 무시하고 그 철회를 강력히 요구하였다. 하지만 호전광들은 우리의 거듭되는 경고를 외면하고 끝끝내 포사격도발을 강행하고야 말았다. 이것은 대화와 관계개선을 거부하고 최악의 선택을 한 것이 다름아닌 피괴들 자신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었다.

현인택역도 그 무슨 《인권》과 《시장경제》를 운운하며 조선반도정세를 《주도적으로 설계》해나갔다고 떠들며 연평도 포격사건을 무시하고 그 철회를 강력히 요구하였다. 하지만 호전광들은 우리의 거듭되는 경고를 외면하고 끝끝내 포사격도발을 강행하고야 말았다. 이것은 대화와 관계개선을 거부하고 최악의 선택을 한 것이 다름아닌 피괴들 자신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었다.

지금 남조선정권세력은 그 누구의 《도발》에 대해 법적 고야대고 있다. 그들이 《최악의 선택》이니 뭐니 하고 우리를 자극하며 침략적인 《제제통일》 야망을 드러낸 망발을 마구 일삼는 것은 리명박당일이야말로 북남사이에 불신과 대결, 조선반도의 긴장상태를 격화시키는 망발군, 위험한 도발자라는 것을 실증해 준다.

불은 불에 기름을 붓고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기 위해 기름을 붓고 헐대비는 리명박당일의 망동은 실로 위험천만하다.

우리 민족은 동족을 모해하기 위해 미친듯이 달려드는 현인택과 같은 악질대결분자들의 죄악을 반드시 결산하고야 말 것이다.

심 철 영

# 사회주의 무릉도원으로 전변되는 내 나라

총련일군대표단 단장인 김경호 총련중앙상임위원의 부주장은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두리에 굳게 뭉쳐 생산과 건설에서 기적과 혁신을 창조하고 있는 조국인민들의 모습을 목격하고 깊은 감동을 받았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우리는 방문기간 최친 2호발 전소건설장들을 돌아보았으며 대동강과 수종항을 비롯한 여러 곳을 참관하였다.

그 과정에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령도를 높이 받들고 조국인민들이 커다란 성과들을 이룩하고 있음을 절감하게 되었다.

절의 위원을 모셔 조국방우에 인민들이 부귀영화와 누릴 무릇을 인편히 펼쳐지고 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선 선군의

기치를 높이 드시고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을 굳건히 수호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인민의 행복을 위해 모든것을 바치시며 강성대국건설의 전향적극면을 열어나고 계시었다.

엄중하신 사면들을 이겨낸 조국에서 귀한 소식들이 편이어서 전해졌다.

주체철, 주체섬유, 주체비료가 폭포처럼 쏟아지고 대대도시의 천지개벽과 최첨단을 돌파하는 CNC회의 세찬 동풍...

경애적인 사면들에 대한 보도를 들으면서 우리는 위대한 령도자를 모신 크나큰 긍지와 자부심을 깊이 간직하였다.

자주 존엄되는 우리 조국은 무진막강한 국력을 과시

하고 있다.

그것은 지역에서도 살고있는 우리에게 든든한 배심을 가지게 하고 있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을 모신 내 조국은 끝없이 흥성번영할 것이다.

이번 방문을 통하여 그것을 더욱 확신하였다.

조국인민들은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을 조선통동당 총비서로 변함없이 높이 추대한 환희에 넘쳐 울헤전투를 빛나게 결속하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전개하고 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계시어 우리는 언제나 승리한다는 신념을 안고 총련일군들과 제일 동무들은 애국열의를 총괄발사케 강성대국건설에 적극 이바지해나갈 것이다.

력사적인 영양상봉과 북남공동선언의 발표로 조국통일의 새 기를 펼쳐진 때로부터 10년이 되는 뜻깊은 이례도 어느덧 마감시기에 들어섰다. 분렬의 비극으로 불신과 대결로

어려든 겨레의 가슴마다에 화합과 단합의 불빛을 뿌려주고 삼천리강토에 거세한 통일열기가 끓어올라고 있다. 1.5 통일시대, 우리민족끼리 기적까지 올릴 수 있는 희망을 지닌 10년세월은 지역에서도 조국통일을 위해 힘차게 투쟁하여 온 제일동무들의 가슴속에 도 함없이 소중한 날들로 간직되어 있다. 그들이 있는 감회속에 번지는 추억의 폐지들을 아래에 펼쳐놓는다.

하나 되던 그 날을 잊 어

력사적인 6. 15 북남공동선언이 발표된 그날 총련 가나가와에서 가나가와 회담으로선 삼시에 수많은 동무들이 모여들었다. 그들중에는 《민단》 소속 동무들도 적지 않았다.

그때의 광경을 돌이켜보며 당시 가나가와상공회 회장이었던 차영호동무는 이렇게 말했다. 《그날 지부회원은 동무들이 머리는 겨레의 환호로 막 날아갈 것 같았습디다. 모두가 뜨거워 눈물을 흘리며 민족의 대정사를 기뻐하였습니다. 정말 분주 통일이 있었단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므로 두달후 지역에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총련은 조국통일의 헌정세와 자기의 입부에 맞게 조국통일운동을 더욱 힘있게 벌려나가기 합디다.》

력사적인 영양상봉과 북남공동선언의 발표로 조국통일의 새 기를 펼쳐진 때로부터 10년이 되는 뜻깊은 이례도 어느덧 마감시기에 들어섰다. 분렬의 비극으로 불신과 대결로

어려든 겨레의 가슴마다에 화합과 단합의 불빛을 뿌려주고 삼천리강토에 거세한 통일열기가 끓어올라고 있다. 1.5 통일시대, 우리민족끼리 기적까지 올릴 수 있는 희망을 지닌 10년세월은 지역에서도 조국통일을 위해 힘차게 투쟁하여 온 제일동무들의 가슴속에 도 함없이 소중한 날들로 간직되어 있다. 그들이 있는 감회속에 번지는 추억의 폐지들을 아래에 펼쳐놓는다.

하나 되던 그 날을 잊 어

력사적인 6. 15 북남공동선언이 발표된 그날 총련 가나가와에서 가나가와 회담으로선 삼시에 수많은 동무들이 모여들었다. 그들중에는 《민단》 소속 동무들도 적지 않았다.

그때의 광경을 돌이켜보며 당시 가나가와상공회 회장이었던 차영호동무는 이렇게 말했다. 《그날 지부회원은 동무들이 머리는 겨레의 환호로 막 날아갈 것 같았습디다. 모두가 뜨거워 눈물을 흘리며 민족의 대정사를 기뻐하였습니다. 정말 분주 통일이 있었단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므로 두달후 지역에서는

# 애국 위업의 한 길에 서

총련장에 모인 동무들은 《조국통일 안내 1》의 환호성을 목격했 터지며 서로 힘을 합쳐 자주통일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힘차게 투쟁해나갈 결의를 다지였다. 길게 드리웠던

반세기 만에

《환영! 제일동포고향방문단》 지난 2002년 4월 6. 15가 열려온 길을 따라 제 7차 제일동포고향방문단 성원으로 남조선방문을 하게 된 제일동포고향방문단 부부장 김진철동무는 비행장에 내몰은 이 횡단막을 보고 류다란 심정에 울컥하였다.

(정말 시대가 변했구나! 6. 15가 아니라 이번 인연 상상조차 하였었는구나! 사실 오랜 세월 동족이 《주적》으로 적대시되어온 남조선에서는 총련도 《북과 연계된 조직》으로 라인적화되어 있었다. 그래서 총련일군들과 동무들은 대다수가 남북방에 고향을 두었고 그곳을 찾지 못한

본렬의 그림자를 걸어내고 동포사회가 하나로 합쳐지던 그날을 영원히 잊지 못하며 이곳 동무들은 오늘도 엄중한 정세에서도 변함없이 자주통일의 그날을 향해 손잡고 투쟁해나가고 있다.

이론 소원

는 울분이 가슴속에 응어려져 있었다. 총련사업에 인생을 바친 김진철동무의 아버지도 팔고 고향땅을 다시 밟아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

6. 15 통일시대는 동무들의 마음속에 맺혀있던 그 울분과 슬픔을 가셔주며 그리운 고향에 이를 열어주었다. 김진철동무도 반세기만에 꿈과 같이 소원을 이루었던 것이다. 어버이수령님의 초상화장상을 가슴에 정중히 모시고 당당한 모습으로 남북방을 밟던 그날을 돌이켜보며 김진철동무는 6. 15의 전취물을 끝까지 지키며 자주통일위업을 힘껏 이마지할 의지를 더욱 굳게 가다듬고 있다.

통일의 선물을

6. 15 통일시대를 맞아 총련 금강산가극단은 여러차례나 남조선에서 뜻깊은 공연활동을 펼쳤다. 창립이후 수십년세

의 공연은 소원으로만 남아있었다. 그 소원을 마침내 이룩한 가극단성원들의 심정은 남달랐다. 그들 가운데는 장세남 열사가 연공배우 최영덕선도 있었다. 2000년 12월 서울에서 펼쳐진 공연무대에서 그의 장세남동무 《통일가사》는 남녘인민들의 대결찬을 받았다. 그때로부터 여러번에 걸쳐 남방방문을 받은 그는 남조선인민들의 가슴마다에 참다운 민족예술의 향기를 뿌려주고 그것을 조국통일운동으로 고무추동하는데 이바지하는 작풍을 무대에 펼쳐놓았다.

《눈물을 흘리는 사람, 자리에서 일어설 사람, 자리에서 일어나 민족이 함께 손잡고 나가면 조국통일은 반드시 이룩된다는 확신으로 설계된 공연장의 그 광경들을 정말이 지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때 말이 어찌이런듯 그는 자주 이렇게 말하곤 한다.

지금 내의 반통일세력이 6. 15 통일시대의 전진을 가로막으려고 책동하고 있으나 겨레의 가슴속에 울려나오는 통일의 선물은 결코 막을 수 없다는 것이 지난 10년간을 돌이켜보며 그가 더욱 새겨안은 진리이다.

본사기자 허영민

행거에 부딪치고 있는 반인민적정체

보도된바와 같이 얼마전 남조선당국은 미국과 《자유무역협정》과 관련한 추가협상내용을 발표하고 인민들의 리익을 팔아먹는 수레를 부리었다. 미국에 일방적인 리익을 주고 남조선경제를 파괴적위기로 몰아넣는 이번 추가협상내용을 두고 남조선 관계는 분노를 금치 못하면서 보수배당의 사대매달이며 굴욕적인 망동을 한결같이 폭로, 규탄하고 있다.

얼마전 남조선의 《자유무역협정정치법규민운동본부》는 서울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남조선에서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반대하는 투쟁에 나설것을 선언하였다. 기자회견에서 발언자들은 당국이 민중의 의사를 무시하고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 추가협상을 타결한 데 대해 언급하였다. 그것을 통해 미국에만 일방적리익이 차체지게 되었다고 까박하면서 그들은 특히 《정부》가 이번 미국산 미친소고기 수입을 위한 협상까지 하고도 그 사

실을 숨기고 있다고 비난하였다. 그들은 이번 협상이야말로 리명박과 미국당국자와의 《합작사기극》이라고 하면서 각계 민중과 편대하여 《자유무역협정》 추가협상을 반대하는 투쟁을 광범히 전개해나갈것이라고 언명하였다.

민중로총, 진보연대, 민주노동당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과 야당들은 지난 12월 5일 서울에서 집전세력의 친미굴종행위를 규탄하는 집회를 가지었다. 집회에서 발언자들은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 추가협상에서 민중의 리익을 송두리채 팔아먹는 보수당국이 《국회》에서 4대강정비공사와 관련한 다음해 《예산안》을 처리하려고 책동한 데 대해 까박하였다. 그들은 사상 유례없는 당국의 반인민적양태에 진전자본도 불신감을 표출하고 있다 하면서 《정부》 투쟁을 더욱 강도높이 벌릴것을 선언하였다.

전국농민회총련맹 소속 농민들도

8일 서울역광장에서 보수당국의 굴욕적인 《자유무역협정》 추가협상내용을 규탄하는 집회를 가지었다. 그들은 결의문을 통해 당국이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 추가협상을 끝내 타결한 데 대해 규탄하였다. 그들은 집전세력의 망동인 남조선인들을 말살하는 결과를 초래할것이라고 하면서 더러운 친미사대매달행위를 당장 중지할것을 당국에 요구하였다. 한편 그들은 농민들의 생활현안이 날로 어려워지고 있다고 하면서 당국이 4대강정비공사에 쏟아부으려는 《예산》을 농민들에 대한 지원에 돌려야 할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남조선신문 《한겨레》는 《피주거협상》 받아들일 수 없다 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이번 《자유무역협정》 추가협상은 예상했던대로 미국의 요구를 거는 그대로 수용한 일방적인 협상이었다고 개탄하였다. 계속하여 신문은 이번 협상은 미국자본가집단의 리익을 절

저히 보호하기 위한 사실적인 일방적인 《보호무역협정》이며 민중의 안전과 환경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굴욕적인 양보라고 하면서 바로 여기에 미국권력자가 이번 협상결과를 보고 《회기적인 거래》였다고 패배를 울린 리유가 있다고 까박하였다. 신문은 《미국에 일방적으로 끌려다니면서 그의 리익만 충족시켜주며 매국협상결과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세력들은 미국의 남강도적요구를 반영하고 있는 남조선시국 《자유무역협정》의 폐기를 주장하면서 당국자가 민중에 사과할것을 요구하였다. 그들은 보수당국이 《예규법정》의 실패로 위기에 빠진 미국과의 바지거임에 매달려 민중의 리익을 팔아먹고 있다고 하면서 이번 《피주거협상》의 폐기를 주장하고 있다. 그들은 민중이 반대하는 4대강정비공사에선언에는 사각집이 아니라 마구 파헤쳐진 것들은 원상태로 복구되어야 할것이라고 주장하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시킬것을 요구하는 노동자들의 투쟁은 정당하다고 강조하였다.

회의에서는 리명박 《정부》의 악행을 배후하여 투쟁에 떨치나설때 대한 공동선언문이 발표되었다.

본사기자 김현철

# 무참히 짓밟히는 노동자들의 생존권

최근 남조선당국이 지난해 쌍용자동차회사에서 해고당한 노동자 가운데서 경찰활동의 폭력에 대해 부당한 사람들에 대해 지불되었던 《의료보험금》을 빼앗아낸 사실이 알려지자 각계의 커다란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

제2의 《통산참사》라고도 할 수 있는 쌍용자동차사태는 지난해 5월 경영악화를 구실로 수천명의 노동자들을 무참히 해고한 회사측에 항의하여 이력 근로자들이 벌린 투쟁을 당국이 무차별적으로 진압함으로써 초래되었다.

항상 제법대로 특권폭속들의 리익만을 대변해 오던 보수배당은 당시 회사측의 망동을 《정당한 결정》으로 둔둔하고 오히려 노동자들의 합법적인 투쟁을 《불법》으로 몰아내면서 《강경대처》를 운운하여 격분한 근로원들이 강도높은 투쟁을 선포하고 이를 지지하는 각계의 목소리가 높아가자 파쇼광들은 드디어 폭압의 사나운 이빨을 드러냈다. 경찰은 공장안에서 해고된 노동자들에게 대한 심리, 가소, 물공급을 중단하였으며 나중에는 의료봉사차기 가로막아내었다. 노동자들이 이에 굴하지 않자 악에 받친 파쇼광들은 방패와 끈봉으로 무장한 경찰들을 동원하여 돌격하여 노동자들에게가서 끈봉으로 못대길 을 가하는 친인공노할 만행이 감행된 노동자사냥터였다. ...》

이것이 바로 실업자들에게 그 무슨 《일자리를 마련》 해주고 《희망》을 주겠다고 나쓰며를 떨던 보수배당이 감행한 치명적인 만행이다.

남조선당국은 이렇게 쌍용자동차 근로원들의 파업투쟁을 폭력으로 야수적으로 탄압하여 이 회사의 구조조정을 가가쓰로 단행하였다. 하지만 분노한 노동자들과 각계의 합법적인 투쟁은 누그러들 수 없었다. 하느수없이 격양된 민심을 위유 해볼 심산으로 경찰의 무차별적인 진압과정에 심한 부상을 입은 사람들에게 얼마간의 《의료보험금》을 지불하는 불을 버리었다.

그러나 한층도 못되는 특권폭속의 치부를 위해 절대다수의 근로인민대중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과 불행의 강요하는 자들이 그들의 치료를 위해 돈을 던져주었다던 귀면 얼마나 주었는가. 쌍용자동차회사 조립공장에서 일하다가 해고당

한 한 노동자는 지난해 파업투쟁시 경찰에 의해 10cm높이의 옥상에 서 떨어져 척추와 다리가 부러진 것으로 하여 당국으로부터 《의료보험금》을 받았지만 생활의 괴와도 같은 그 보잘것없는 돈으로는 엄청난 치료비를 대수할 없었다. 하여 그는 1년이 넘도록 침상에서 일어나지 못하고있는 형편이다. 다른 한 노동자도 역시 경찰들의 야수적 만행으로 크게 다쳐 가정질과 치료까지 팔면서 무더기 설악이나 입원치료를 받았지만 상태는 점점 더 악화되고 있다고 한다.

가족을 먹여살려야 할 이들이 일자를 계속하고 파쇼경찰의 폭력에 의해 온신할수 없는 처지에 빠졌으니 살아갈 알길이 막막할 것은 불모든 명백하다. 바로 이런 처지에 놓여있는 불행한 사람들에 대해 남조선당국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전혀 없다. 마저 도로 빼앗아내려고 달려들었다. 이런자들이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없겠는가. 돈을 내놓음에 대한 료보를 받은 한 노동자는 《갑자기 해고당한 몸이 이와 일자를 구할수 없어 먹고살기도 힘든데 이 무슨 《보험금》까지 주셨습니까. 이런 법이 어디 있느냐!》고 체치며 통곡하였다고 한다.

리명박당일이야말로 근로인민들의 생존권을 무차별적으로 짓밟는 극악한 반인민적정체이다. 그 무슨 《친선정책》이니 뭐니 하여 인민들의 생존권보장에 관심이라고는 없는듯이 떠돌이 리명박당일의 추악한 반인민적정체, 파쇼적분공을 다시한번 여지없이 드러냈다.

사실들은 남조선인민들이 오늘 불행과 고통을 면피시키고자 한 단계를 살타면 보수배당의 반인민적정체를 결단코 광장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본사기자 장운남

#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부패행위

남조선신문 《한겨레》 2일부에 의하면 리명박역도가 막대한 량의 자금을 들이먹어 퇴환후 재가 살 화호주제를 건설하려 하고 있는 사실이 드러나 큰 사회적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연도는 서울 강남구 룬현동일대에 고급주택을 지을 것을 계획하고 100억원에 달하는 엄청난 돈을 땅장전해 하고 있다.

현재 피괴대통령실이 제출한 건설부지주입과 관련한 예산안인 《국회》운영위원회에서 통과되어 있다.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역도의 반인민적경제정책과 폭정으로 하여 지금 남조선에서 경제는 파란에

# 4대강정비공사증지를 요구

남조선의 정장, 시민사회단체들이 2일 서울에서 비상대책회의를 가지고 피괴당국의 반인민적양태를 규탄하였다.

회의에서 발언자들은 리명박 《정세방상》을 할 돈마저 없이 국방, 관자점, 음악 등 집 안 집 안에서 살고있는 사람이 68만대나 된다고 하면서 그들은 민중의 생존권을 짓밟는 현 《정권》을 심판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그들은 당국의 반노동자정책으로 말미암아 근로자들이 일어나고 경찰의 탄압과 압수공행의 행태에 항거하여 현대자동차공장

# 조진중양통신

남조선의 정장, 시민사회단체들이 2일 서울에서 비상대책회의를 가지고 피괴당국의 반인민적양태를 규탄하였다.

회의에서 발언자들은 리명박 《정세방상》을 할 돈마저 없이 국방, 관자점, 음악 등 집 안 집 안에서 살고있는 사람이 68만대나 된다고 하면서 그들은 민중의 생존권을 짓밟는 현 《정권》을 심판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그들은 당국의 반노동자정책으로 말미암아 근로자들이 일어나고 경찰의 탄압과 압수공행의 행태에 항거하여 현대자동차공장

# 현대과학기술을 악용한 미제의 교활한 심리모략전

미제가 반제자주적인 나라들을 공격 목표로 삼고 심리모략전을 악랄하게 감행하고 있다. 이에 있어서 미국은 현대과학기술에 크게 의거하고 있다.

미제는 인류가 창조한 현대과학기술 수단을 리용하여 심리모략전의 효과를 최대한 높여 하고 있다.

오늘날 현대과학기술수단을 리용하여 심리모략전을 벌리는것은 미제의 국책으로 되고 있다.

자료를 의하면 미제는 공격대상으로 정한 나라에 대해 사전에 세밀한 심리조사를 실시하고 그것을 《국가적 총적 전략과 정치정책》에 포함시켜 정치, 경제, 외교, 군사 등 여러 측면에서 통일적으로 추진시키고 있다 한다.

미제는 정보기술의 이러한 특성을 리용하여 세계에 새로운 심리모략전 무대를 펼쳐놓고 있다.

미제가 세계 여러 지역들에 설치한 수많은 텔레비전방송국들, 위성통신설비들 등이 내보내고 있는 의곡된 음성 및 영상자료들이 전세계를 뒤덮고 있다. 이러한 자료들은 시청자들의 머리에 거침없이 빠른 속도로 전달되어 정신심리를 자극하고 변화시키고 있다.

미제는 현대과학기술을 리용한 정보조작으로 사람들의 심리를 저들의 목적성향을 위한 방향으로 유도하고 있다.

정보기술의 발전은 음성 및 동화상 등 연구수단은 현대과학기술수단을 리용하여 심리모략전에 적극 리용하기 위한 사업에 달려있고 있다. 여기에 막대한 자금이 투자되고 있다. 또한 그것을 현실에 최대한 리용하기 위한 용모들이 꾸며지고 있다.

미제는 정보기술을 리용하여 시공간적 제한 없이 심리모략전을 벌이고 있다.

지난 시기 기본정보전달수단은 텔레비전 및 라디오방송, 출판물들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수단들이 나르는데는 정보가 창조한 현대과학기술 수단을 리용하여 심리모략전의 효과를 최대한 높여 하고 있다.

그러나 인터넷과 위성통신기술이 급속히 발전하고 이동식 휴대용전화기 등이 도입되면서 사람들은 임의의 시각에 필요한 대상들과 대화하고 교류할 수 있게 되었으며 임의의 장소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화상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목격할 수 있게 되었다.

미제는 정보기술의 이러한 특성을 리용하여 세계에 새로운 심리모략전 무대를 펼쳐놓고 있다.

미제가 세계 여러 지역들에 설치한 수많은 텔레비전방송국들, 위성통신설비들 등이 내보내고 있는 의곡된 음성 및 영상자료들이 전세계를 뒤덮고 있다. 이러한 자료들은 시청자들의 머리에 거침없이 빠른 속도로 전달되어 정신심리를 자극하고 변화시키고 있다.

미제는 현대과학기술을 리용한 정보조작으로 사람들의 심리를 저들의 목적성향을 위한 방향으로 유도하고 있다.

정보기술의 발전은 음성 및 동화상 등 연구수단은 현대과학기술수단을 리용하여 심리모략전에 적극 리용하기 위한 사업에 달려있고 있다. 여기에 막대한 자금이 투자되고 있다. 또한 그것을 현실에 최대한 리용하기 위한 용모들이 꾸며지고 있다.

미제는 정보기술을 리용하여 시공간적 제한 없이 심리모략전을 벌이고 있다.

전쟁, 세계제패 야망 실현책동에 악용되고 있다. 미제는 과학기술적능력을 갖춘 심리모략전문가들을 동원하여 정보자료들을 가공해냄으로써 사람들의 사고를 혼란시키고 판별능력이 흐트러지게 만들고 있다.

현대과학기술수단을 리용한 미제의 심리모략전은 침략전쟁을 용이하게 하는데 우선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지금 미제는 우리 나라를 비롯하여 반제자주적인 나라들을 손쉽게 침략하기 위해 현대과학기술수단을 리용한 심리모략전을 악랄하게 벌이고 있다. VOA방송을 비롯한 미국의 각종 선전수단들이 진보적인 나라들의 사회제도를 헐뜯고 비방하는 정보자료들을 끊임없이 내보내고 있다. 미제는 외국도 정보자료들을 통하여 해당 나라 지도부와 인민들을 분열리간시키고 색교병은 미국식사회제도에 대한 환상을 조성하려고 하고 있다.

미제는 현대과학기술수단을 리용한 심리모략전을 통하여 세계적인 반미기운을 전지구적으로 바꾸려고 하고 있다.

지금 세계적으로 반미감정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이라크를 침공할 때 미국이 내걸었던 《대량살상무기개발하지 않는다》의 구실이 완전한 날조였다는 것이 드러나 세상사람들의 경악을 자아냈다. 미국은 국제무대에서 동태북처럼 모순들을 맞으며 물러나고 있다.

미국은 정보기술수단을 리용하여 세계인민들의 반미감정을 변화시키기

위해 미국식 《가치관》을 설교하는 동화상자료들, 오락프로그램 등을 만들어 세계에 류포시키고 있다. 이로 하여 일부 나라에서 청년들의 사상정신상태가 이리저리 사회화혼란이 빚어지는 등 심각한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다.

현대과학기술수단을 리용한 미제의 범세계적인 심리모략전은 반제자주적인 나라들에 심각한 교훈을 안겨주고 있다.

미제의 심리모략전이 날을 따라 더욱 악랄해지는 조건에서 인민들 특유의 정신수단들에 대한 사상교양사업을 한시도 늦추어서는 안된다. 오늘의 현실이 이것을 요구하고 있다.

사상교양사업을 강화하여 사상의식, 정신심리적면역이 강해질 수 있다. 면역이 강한 사람에게는 병균이 침습하지 못하는 법이다.

정보산업시대에 들어선 오늘 미제의 심리모략전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 정보기술발전에 커다란 힘을 넣어야 한다. 과학기술, 정보기술을 발전시키는 사업은 미제의 심리모략전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중요한 방편으로 된다.

현대과학기술을 리용한 미제의 심리모략전의 수법과 그 위험성, 해독성을 사람들에게 똑바로 알려주기 위한 교양사업을 강화해야 한다.

미제의 심리모략전에 단호히 대처해나갈 때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을 지킬 수 있고 반미투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

리 경 수

# 뒤가 썩은 자들의 파렴치한 꾀변

외신보도에 의하면 최근 그 무슨 《안보회의》라는데 참가하기 위해 중동의 한 나라를 행각한 미국무장관이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우리 공화국의 《핵계획》에 의해 년내에 《군비경쟁이 터질것》이라느니 뭐니 하고 떠벌었다.

그가 도대체 무슨 근거로 그따위 주장을 하는가.

국제적인 평화적핵에너지개발, 리용수체에 발맞추어 우리 나라에서도 그러한 사업이 벌어지고 있다.

평화적핵활동은 그 누구도 가로막을 수 없는 세계 모든 나라들의 자주적권리이다.

그런데 미국무장관이 우리의 《핵계획》이요, 《군비경쟁촉발》이요 뭐요 하는것은 그야말로 당치 않은 소리이다. 입은 삐뚤어졌어도 말은 바로 하겠다고 그는 허튼 나발을 불어대지 말아야 한다.

공정한 입장을 서서 그가 국제적관도에서의 핵계획과 군비경쟁발목을 대하여 말하려 한다면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무력증강과 핵무기개발행동부터 털어놓고 문제시했어야 할 것이었다.

현시기 국제무대에서 새로운 군비경쟁위협이 커지고있는것은 전적으로 미국의 패권주의, 힘의 정책에 기인한다. 미국의 힘의 우위에 의하여 세계제패야망을 실현하려는 흉계 밑에 새로운 현대대무기의 개발과 생산, 배비를 발광적으로 다그치고 있다.

미국무장관이 밝힌데 의하더라도 미국이 보유하고있는 핵탄두수는 무려 5000여개에 달한다. 이것자체가 군비경쟁의 근원으로 된다. 그런데 미국은 핵탄두를 《축감》한다고 발표하고는 뒤에 돌아앉아서 탄 장탄을 하고 있다. 미국이 《핵무기축감》에 따른 새로운 《억제 수단》으로 핵무기를 탑재하지 않는 제퍼시태 특강간도미사일과 핵탄두도 탑재할 수 있는 신행

순항미사일개발에 박차를 가하고있는것이 그 단견실예이다. 2011년부터 2020년까지 4단계에 걸쳐 유럽에 미사일방위체계를 전개할 계획을 세우고 적극 추진하고있는 나라도 미국이다. 조선반도와 중동지역, 라틴아메리카에서의 미국의 군사적압력확장, 나토의 동쪽에서의 확대 등도 세계를 견장을 수 없는 군비경쟁의 길로 몰아가고 있다. 해마다 거액의 군사비를 쏟아부으며 무력을 증강하고 있는 미국의 전쟁수입인인 이스라엘과 일본은 상상의 묵인, 비호하에 이미 핵무기화를 실현하였거나 핵무기를 가지려고 무진 애를 쓰고 있다.

미국이 이 모든것에 대하여서는 입을 봉하고 평화적핵활동을 하고있는 우리 공화국을 걸고드는것은 무엇때문인가. 그것은 우리의 《핵계획》에 대하여 떠들어서 군비경쟁을 조장화시키며 핵전쟁위험을 조성하는 저들의 범죄행위를 남에게 뒤집어씌우고 흉악한 기도를 실현해보려는 교활한 술책에 지나지 않는다. 하지만 그런 수법에 속아넘어갈 사람은 없을 것이다. 미국당국자들이 우리의 《핵계획》에 의한 그 무슨 《군비경쟁촉발》을 운운하는것은 뒤가 썩은 자들의 파렴치한 꾀변이다.

미국이 지금처럼 핵무력증강과 미사일방위체계구축, 전쟁행동을 로골적으로 강화하는 길로 나가한다면 세계는 새로운 군비경쟁의 소용돌이 속에 깊이 빠져들게 될 것이다. 미국은 그 어떤 감언리설로라도 군비경쟁의 주범, 세계평화와 안전리설의 장본인으로서의 정체를 절대로 감출 수 없다.

미국당국자들은 남을 걸고들어 혈투는 수법으로 검은 속심을 채우려는 나쁜 궁성을 버려야 한다.

김 중 순

## 핵 권리를 수호할 립장 천명

이란대통령 마흐무드 아흐마디네자드 가 8일 상봉식상에서 나라의 핵권리를 수호할 립장을 재천명하였다.

그는 우라늄농축을 포함하여 핵활동과 원자력발전소건설은 나라의 자주권에 관한것으로서 이 문제를 놓고 협상과 협조로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압력과 제재로는 이란 인민을 굴복시킬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란국가외교안건리사회

서기장 세이드 자랄리 가 4일 자기 나라의 핵계획을 지지시키기 위한 서방의 악랄한 방해책동을 규탄하였다.

그는 최근 감행된 이란핵물리학자들에 대한 테러공격을 자기 나라를 반대하는 고립압살전략에서 실패한 서방의 발악적인 책동의 한 고리라고 비판하였다.

서방의 그 어떤 책동도 합법적인 핵권리를 실현해나가는 이란인민의 앞길을 결코 가로막지 못하리라고 그는 강조하였다.

한편 이란국가외교안건리사회

## 부정부패를 청산할데 대해 강조

잠비아대통령 루피아 브레자니 빈다 가 9일 수도에서 진행한 한 집회에서 연설하면서 부정부패를 청산할데 대해 강조하였다.

그는 최근년간 부정부패와의 투쟁을 통해 많은 성과를 거두었지만 아직 사회의 여러 분야

에서 편향들이 나타나고있다고 말했다.

그는 부정부패행위의 근원을 없애려면 정부가 감독기구를 내오고 그 역할을 높이도록 하는 것과 함께 전체 인민이 그를 반대하는 투쟁에 적극 떨쳐나서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 기후변화에 대처해나갈것을 호소

에티오피아수상 펠레스 케나 위가 9일 메트로에서 진행된 기후변화에 관한 유엔회의에서 연설하면서 국제공동체가 기후변화에 적극 대처해나갈것을 호소하였다.

그는 아프리카나라들에서 기후변화에 의한 큰물과 가뭄으로

피해를 입고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기아와 질병의 위협을 받고있다고 말했다.

기후변화의 주요원인인 지구온난화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급히 장기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그는 강조하였다.

## 일미공동통합연습을 비난

로씨야의 소리방송이 10일 사상 최대규모로 벌어지고 있는 일미공동통합연습을 비난하였다.

방송은 분석가들의 말을 인용하여 조선반도와 그 주변정세가 극도로 첨예화되어있는 조건에서 이 지역에서의 그 어떤

군사훈련도 매우 부정적인 반응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므로 일본과 미국이 진행하는 군사연습은 부당하다고 지적하였다.

로씨야정찰기들이 테평양상공에 나타나 일미공동통합연습을 파란시켰다고 일본이 주장

## 미국의 압력과 봉쇄책동 배격

파키스탄의무성 대변인이 한 TV방송과의 회견에서 자기 나라에 대한 미국의 부당한 압력을 단호히 배격하였다.

최근 미국이 《반테러》를 구실로 파키스탄공공에서의 무인기비행구역 확대했다고 하면서 이 나라 정부에 압력을 가하고있는데도 판명하여 그는 안전진 지역에 대한 미국의 무인기공습을 절대로 허용하지 않을것이라고 언급하였다.

● 벨라루시주제 쿠바에서유

## 봉쇄책동 배격

최근 이 나라의 한 대학에서 진행한 특별강연에서 미국의 반쿠바봉쇄책동을 규탄하였다.

그는 지난 수십년동안 미국이 쿠바를 반대하여 실시하고있는 봉쇄를 극악한 대량살상탄핵으로 략인하였다. 이를 중지할 것을 요구하는 결의가 유엔총회에서 연속 19차례나 채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부당한 봉쇄책동을 계속 추구하고있고 그는 단호히 말했다.

본사기자

## 나이제리아주제사상연구전국위원회 년차총회 진행

나이제리아주제사상연구전국위원회 년차총회가 7일 이부자에서 진행되었다.

총회에서는 올해활동정형을 총화하고 다음해 조조들의

운영계획을 토의하였다.

총회는 주제사상의 창시자인 김일성주체의 탄생 100돐을 뜻깊게 기념하에서 2011년 활동이 매우 중요하다는데 대하여

강조하고 련향토론회 등을 진행하며 나라의 여러 지역에 주제사상연구소조들을 확대해나가기로 결정하였다.

본사기자

## 이스라엘의 정착촌확장책동 규탄

▲ 예루살렘의무성 아흐마드 아부 알 게이트가 4일 성명을 발표하여 이스라엘의 유대인정착촌확장책동을 신랄히 비난하였다.

이스라엘이 강점한 동부 우드스지역에서 유대인정착촌을 계속 건설하려고 획책하고있는것과 관련하여 성명은 그것은 우드스문제를 중평형회담의 핵심에서 서 베리하기 위한 책동의 한 고리라고 까뻐했다.

동부우드스는 이스라엘의 수도가 아니라 앞으로 창건될 팔레스타인국가의 수도라고 하면서 성명은 이스라엘의 정착촌확장책동이 중평형회담을 파괴하는 중평평화를 초래할것이라고 규탄하였다.

▲ 오르단외무상 나세르 자우다트가 4일 한 외교적상에서 유대인정착촌확장책동을 중지할것을 이스라엘 당국에 강력히 요구하였다.

그는 이스라엘이 정착촌을 계속 건설하고있는것에 팔레스타인-이스라엘평화회담을 파탄시키는 기본요인으로

판다고 까뻐했다.

평화회담개기에 유리한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이 이스라엘이 비법적인 정착촌건설을 포함한 모든 일방적인 행위를 당장 중지할것을 요구하였다.

▲ 유엔주제 브라질상임대표가 11월 30일 유엔회의에서 연설하면서 강점한 팔레스타인영토에서 유대인정착촌확장책을 중지할것을 이스라엘에 강력히 요구하였다.

정착촌건설을 중지하는것은 이스라엘이 지닌 법정의 무일뿐 아니라 지역에서의 평화협상을 위한 필수조건이라고 그는 주장하였다.

그는 정착촌확장책동은 평화회담개기전장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있다고 하면서 서 이스라엘은 이를 당장 중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유엔주제 벨지크상임대표가 11월 29일 유럽동맹을 대표하여 발표한 성명에서 팔레스타인영토에서의 정착촌건설을 완전히 중지할것을 이스라엘에 요구하였다.

그는 그 결정을 당장 철회할것을 이스라엘 당국에 강력히 요구하였다.

였다. 성명은 강점한 영토에서 유대인정착촌을 건설하는 것은 국제법에 위반되는 행위로서 중평평화를 가로막는 장애물로 된다고 지적하였다.

성명은 이스라엘당국이 동부우드스를 포함한 팔레스타인영토에서 유대인들의 정착활동을 종식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 팔레스타인해방조직 행위회 위위 아흐메드 마흐무드 가 11월 29일 이스라엘의 부당한 결정을 신랄히 비난하였다.

이날 이스라엘당국이 동부우드스에 130개의 유대인정착촌을 또 건설하기로 결정하자 관련하여 그는 그것은 이스라엘이 중평평화를 이룩하기 위해 노력한 의향이 전혀 없다는것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로 된다고 말했다.

그는 그 결정을 당장 철회할것을 이스라엘 당국에 강력히 요구하였다.

본사기자

## 큰 불 끄고

▲ 베네수엘라에서 최근 며칠째 계속 내린 무더기비로 수도인 카라카스, 칸물로 수도와 미란다주, 팔참주를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1일현재 25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다. 또한 수천명의 살림집과 도로들이 파괴되었다. 정부에서 군대와 경찰을 동원하여 긴급구제사업을 벌이고 있다.

▲ 알바니아의 동북부지역에서 최근 며칠째 계속 내린 무더기비로 큰물피해를 입었다.

## 해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긴급구제 조치를 취하고 있다.

▲ 오스트랄리아의 뉴 사우스 웨일즈주를 비롯한 여러 주들에서 최근 무더기비에 의한 큰물피해를 입었다. 칸물로 9일 현재 4명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약 4000세대의 주민들에 대한 전력공급이 중단되는 등 혼란이 조성되었다. 피해가 많은 45개 주민구역이 제해지역으로 선포되었다.

【조선중앙통신】

## 파 약 압 수

▲ 독일국가법정재판장인 조약기구수령관 반약약기관법보호기판들이 11월 16일부터 22일까지 성원국 명도에서 공동으로 반약약정를 벌였다. 작전과정에 6.5t 이상의 마약이 압수되었으

## 시 랑 위 기

▲ 모잠비크의 인함바네주에서 식량위기가 격화되고 있다. 11월 27일 이 나라 통신은 주에서 오메달안 지속된 가

로 농사를 망쳐 4만 6000명이 이상이 식량난에 처해있다고 밝혔다.

▲ 조선중앙통신

## 경 제

일본에서 당국의 부당한 정책으로 경제형편이 계속 악화되고 있다.

일본정부는 8일 조사자료를 인용하여 10월에 전국적으로 우즈기경제물주름률이 그 전달에 비해 1.4% 떨어졌다고 밝혔다.

주문량감소로 기계제작업체 등에서 경영형편이 악화되었다.

## 아프가니스탄에서

아프가니스탄주둔 나토군이 이 나라 항쟁세력의 공격작전에 의해 계속 죽어나고 있다.

11월 22일 남부지역에서 항쟁세력의 폭탄공격으로 2명의 나토군병사가 즉사하였다.

11월 29일에는 동부지역에서 항쟁세력의 공격을 받아 6명의 나토군병사가 즉사하였다.

2일에도 남부와 동부지역에서 항쟁세력의 공격을 받아

## 침 체

경제형편을 보여 주는 지수가 그 전달에 비해 1.4점 떨어졌다고 밝혔다.

한편 일본의 소매업체인 호스리 리미티드회사가 2일 조사자료를 인용하여 올해 11월에 기업체에서 판매량이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14.5% 감소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같은 기간에 이 나라에서 자동차판매량이 30.7% 줄어들어 자동차생산업체 등에서 경영형편이 악화되었다.

## 나토군 계속 즉사

나토군사 2명이 죽었으며 5일에는 바크리야주에서 2명이 즉사하였다.

한편 6일과 8일 남부지역에서 항쟁세력의 공격으로 4명의 나토군병사가 또 즉사하였다.

이로써 올해 들어와 지금까지 아프가니스탄에서 죽은 나토군병사수는 670여명에 달하였다.

【조선중앙통신】

## 기업체 산 증대

그리스에서 금융위기의 후과로 기업체들이 연이어 파산당하고 있다.

11월 29일 이 나라의 한 경제단체는 올해 들어와 지금까지 전국적으로 기업체 파산건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4% 증대되었다고 밝혔다.

빈곤 심화, 실업자 증대

미국에서 빈곤이 날로 더욱 심화되어 사회적인 문제거리로 되고 있다.

특히 아칸소주에서만도 현재 주민 5명중 1명이 빈곤선 이하에서 고르스름게 살고있다고 한다.

11월 29일 주당국이 조사자료를 인용하여 이에 대해 밝혔다.

한편 미국에서 11월에 실업자수가 그 전달에 비해 30만명 또 늘어나 1510만명에 달하였다.

3일 미로통성이 조사자료를 인용하여 이에 대해 밝혔다.

【조선중앙통신】

## 파 쏘교형리들을 감사준 추악한 행위

최근 미국신문 《뉴욕 타임스》가 미사법정의 기밀보고서 내용을 인용하여 제2차 세계대전후 미정부가 나치치도이힐란드감당들에게 피신처를 제공해준 사실을 전하였다.

4년전에 작성된 약 600페이지로 되어있는 기밀보고서는 미국정부가 나치치도감당들의 과거를 알고있으면서도 입국을 승인하였다고 까뻐하면서 미국이 《박해를 가한자들의 피난처로 되었다》라고 못박았다.

기밀보고서는 이전 파쇼도이힐란드의 로트트공작에서 살인무기제작에 종사하다가 제2차 세계대전후 미국에 건너가 우주제국을 창건하여 루돌프에 대한 자료를 제공했다는 것이다.

이로써 제2차 세계대전후 미국이 수많은 파쇼전범자들에게 피신처를 제공해주고 그들을 하수인으로 리용한 사실이 또 드러났다.

제2차 세계대전시 무기장사를 통하여 막대한 재부를 축적한 미국 나치치도이힐란드를 비롯한 파쇼세력이 피멸의 운명에 처하게 되자 연합군측에 합세하여 전승국의 지위를 따냈다는것은 이미 알려져 있다.

눈감아온 사실이 드러나 국제사회를 놀래켰다. 아이히만은 가명을 하고 1952년부터 아르헨티나에 잠복해있었는데 미 중앙정보국이 이 사실을 알면서도 목살하였다고 한다.

어른들은 미중앙정보국이 아이히만을 보호해준것은 그가 1950년대에 당시 서부도이힐란드정부의 고위관리였으면서도 미국을 적극 협력한 나치치도관 한스 클로프페 등과 편질되어있기때문이었다고 폭로하였다.

미국이 아이히만과 클로프페와의 편관관계가 드러나게 되면 나치치도관자들을 싸고낸 저들의 죄상이 드러날것을 우려하여 아이히만에 대한 정보를 깎아뺐었다는 것이다.

미국이 제2차 세계대전후 파쇼전범자들을 몰래 빼들려 무슨일을 했는가에 대해 아직까지 다는 모른다. 하지만 영원한 비밀이란 없는 법이다.

연제인이 제2차 세계대전 직후 일본에 주둔하고있던 미군이 세군무기에 대한 인제실형사자료들을 넘겨주는 조건으로 일제의 약령법은 세군전진단인 《제 731부대》 성원들에게 재판에 기소되는것을

면제해주고 많은 돈과 각종 혜택을 제공해준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일본의 세군전진행에 가담하여 우리 인민을 수많은 학살한데 대해서도 우리는 잊지 않았다.

우리 인민은 1951년 3월 《유엔군사법부》 공공복지부장 장준상 삼스의 지휘하에 제2차 조선인민군과 중국인민지원군 포로들을 대상으로 감행된 세군무기실험준비에 일본 세군전진행자들이 참가하였으므로 같은 해 12월에는 이시 시로와 기타노 마사지 등 일본 세군전기감자들이 또다시 남조선에 기여하여 미제의 세군전에 참가하여 페스트, 콜레라 등 악성전염병을 만연시켰으므로 수만명의 평화적주민들을 살해한 사실도 기억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자료들을 열거하지 않으면 안된다.

자료에 의하면 제2차 세계대전후 도이힐란드 유엔부대 국제법정에서는 수십명의 주요 파쇼전범자들이 심판을 받았다. 그러나 후방 심판을 받은 파쇼전범자들은 전범자총수도 절반밖에 안되며 그가운데서도

일부만이 처형당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것은 적지 않은 파쇼전범자들이 미국의 두둔, 보호속에 목숨을 건진 대가로 또 다시 범죄의 행적을 이어갔다.

일본에서는 당시 국제전범법판에 회부되어 응당한 징벌을 받았어야 할 파쇼전범자들이 아직까지도 세계 각지에서 그 누구의 막무가보로 밤에서 잔멸을 부지하고있고 있다.

국제사법전문가들이 현재 미국의 비호, 묵인하에 제2차 세계대전후 약 1만명의 파쇼전범자들이 미국국민이나 합법적인 신분을 얻어가지고 미국에 거주하고있다고 예측한 것이 있다. 그들은 아르헨티나와 브라질 등 라틴아메리카나라들과 중동지역에 수천명, 아프리카에 수백명 그리고 오세안주에 있는 더 많은 파쇼전범자들이 숨어살고있다고 추정하였다.

제반 사실은 미제야말로 지배주의야망을 품고 인류에게 극악한 죄행을 저지른 파쇼전범자들에게 사죄를 받으면서 리용하는 범죄행위를 저지르지 않는다면 우리의 무리미라는것을 잘 알 수 있게 해준다.

본사기자 조택범